

碩士學位論文

黃順元 小說에 나타난 通過祭儀 研究

－ 「별」 · 「소나기」 · 「학」을 中心으로 －

指導教授 安 成 洙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金 奉 淑

1998年 8月

黃順元 小說에 나타난 通過祭儀 研究

- 「별」·「소나기」·「학」을 中心으로 -

指導教授 安 成 洙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8年 5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提出者 金 奉 淑

金奉淑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8年 6月 日

審査委員長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國文抄錄>

黃順元 小說에 나타난 通過祭儀 研究

- 「별」·「소나기」·「학」을 中心으로 -

金 奉 淑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指導教授 安 成 洙

이 논문은 황순원의 단편소설 「별」·「소나기」·「학」을 중심으로 통과제의적 경향을 살펴보는 데 목표를 두었다.

통과제의는 원래 인류학에서 나온 개념으로 일정한 구조가 있다. 분리, 과도, 통합 의례가 그것이다. 통과제의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성년식이다. 이러한 성년식의 통과제의 신화가 현대소설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소설에서는 모르데카이 마르쿠스에 의해서 그 힘의 강도와 영향의 종류에 따라 시험적, 미완적, 결정적 이니시에이션으로 구분하고 있다.

「별」은 아홉 살 난 소년이 현실로 대변되는 과수노파의 말을 통해서 미추의식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해 현실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다른 소녀에게서 어머니 찾기, 아버지와 의붓어머니의 도덕적 사회적 판단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현실을 수용하면서 통과제의의 과정을 겪고 있다, 결국 누나의 죽음을 맞아 죽음을 이해하고 분노하기는 하나, 생과 사의 격렬성을 상징하는 별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죽음이라는 현실의 충격성을 강조하는 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죽음의 통과제를 완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시험적 통과제의 소설로 분류할 수 있다.

「소나기」는 성(性)과 사랑에 무지한 소년이 예기치 않은 소녀와의 만남, 소나기, 질병, 소녀의 죽음이라는 제의를 거치면서 성인식에 입문하게 된다. 즉 친밀감, 기대감, 그리움, 비밀로 간직하기, 갈등 등을 통해서 정신적 성숙에 이르는 과정이 그려

* 이 논문은 1998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임.

져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소년이 죽음을 극복하는 사랑의 가치를 깨닫고자 몸부림치는 가운데 끝맺음으로써 미완적 통과제의 소설로 분류할 수 있다.

「학」은 전쟁으로 인해 정신적 외상과 정서적 상처를 이미 입고 있는 주인공이 이데올로기의 공포와 형식에 얽매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결국 학을 풀어주는 사건의 회상을 통해 자아에 대한 확신에 이르고 있다. 결국 이데올로기적인 구속의 상징인 포승줄을 풀어버림으로써 완전한 성인입문의 경지에 이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은 결정적 통과제의 소설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황순원은 모르데카이 마르쿠스가 제의한 통과제의의 다양한 양상을 골고루 보여주고 있는 작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황순원이 성장기의 소년과 소녀,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간의 성장과정에서 겪게 되는 심리변화와 성숙의 과정을 모범적으로 탐구한 작가라는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차 례

<國文抄錄>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사 검토	1
3. 연구 방법 및 범위	4
II. 통과제의의 논리와 수용방법	6
1. 통과제의의 양상과 전개과정	6
2. 통과제의의 문학적 수용방법	11
III. 통과제의 소설의 구조와 의미	15
1. 시험적 통과제의 : 「별」	15
2. 미완적 통과제의 : 「소나기」	27
3. 결정적 통과제의 : 「학」	39
IV. 황순원 소설에 나타난 통과제의적 특성	50
V. 결 론	55
참고문헌	57
Abstract	59

I. 서론

1. 연구 목적

황순원은 지금까지 여덟 권의 단편집을 발표하였다. 그 중에서도 초기의 단편집에는 주로 성장기의 소년과 소녀가 많이 등장한다. 이 소년 소녀들은 성숙된 어른의 세계로 입문하는 과정에서 가혹한 정신적 시련과 충격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들은 주체적 자아로 나아가는 가운데 정신적·심리적 갈등을 체험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황순원의 단편 중 많은 작품이 삶의 통과제의적 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인류학에 이론적 바탕을 둔 통과제의 소설은 청소년기의 소년 소녀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그들이 성인 사회에 이입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다양한 정신적·육체적 시련과 체험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특히, 황순원의 몇몇 단편들은 이러한 통과제의적 양상을 풍부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소설로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그의 단편 소설 중, 「별」과 「소나기」와 「학」을 중심으로 하여 소설에 나타난 통과제의의 구조와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황순원 소설에 나타난 통과제의의 의미분석을 통하여 작가가 궁극적으로 그리고자 하는 청소년의 심리 세계를 포착해 내고, 그러한 통과제의적 과정 속에서 갈등하며 성장해 가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조명하여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소설 속에 통과제의의 구조와 발전단계가 어떻게 수용되어 유형화되는가를 살펴보고, 나아가 황순원 소설이 보여주는 통과제의적 의미를 인간 본성 탐구의 한 양상과도 관련시켜 밝혀 보고자 한다.

2. 연구사 검토

황순원은 1930년대에 시인으로 출발하여, 40년 「황순원 단편집」 간행 이후 단

1) "initiation story"의 우리말 표기는 '이니시이션 스토리'와 '통과제의 소설'의 두 가지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통과제의 소설'로 부르려고 한다.

편소설 쓰기에 심취하였다가, 50년대 이후는 장편소설을 주로 써왔다. 현재까지 두 권의 시집과 여덟 권의 단편집 그리고 일곱 권의 장편소설을 발표하였다.²⁾ 이처럼 시에서 출발한 황순원의 소설은 시쓰기에서 획득된 간결한 언어와 상징적 이미지들이 서정 소설의 분위기를 창조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는 특이한 일면을 보여준다.

통과제의 소설의 관점에서 볼 때, 황순원의 소설은 삶의 제의적 과정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그는 주인공이 '성장(成長)'을 위한 보다 '특별한 단계'로 입문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충격과 심리적 고통들을 주요 테마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삶과 사회의 가혹한 현장에 아직 입문하지 않는 성장기의 순수하고 소박한 소년과 소녀들이 현저하게 등장하는 소설을 통해 작가는 인간 본성의 한 차원을 예리하게 제시한다.

생의 가열한 현실보다는 유년이나 동화적인 낙원의 색채로 가려진 세계요, 성숙에로의 통과제의가 아직도 채 이루어지지 않은 인간의 유년기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문학이다. 그만큼 악의 요소가 배제되어 있는 꿈과 순진의 세계이다. 물론 노인의 영락한 인생, 낡은 것과 늘처럼 소멸하는 것에 대한 연민과 애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구조적인 것은 사춘기의 세계이다.³⁾

이러한 이재선의 지적은 온당하게 들린다. 또한 그는 황순원 소설의 통과제의적 속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사춘기의 소년이나 소녀가 죽음이나 성 또는 선과 악의 도덕적 갈등 그리고 미(美)와 혼(魂) 및 자아(自我)와 같은 일련의 충격적인 경험의 의미를 어떻게 수용하면서 아울러 이전과는 다른 변화와 효과를 가지고 어떻게 성숙되는가를 다룬 소설이다.'⁴⁾라고 정의하면서 '그것은 대립의 세계라기보다는 생의 과정에서 잇달아 있는 징검다리 같은 것이다.'⁵⁾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어린 주인공이 유년에서 성년으로 이행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통과제의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2) 황순원은 「눈」(1940), 「목님이 마을의 개」(1948), 「기러기」(1951), 「곡예사」(1952), 「학」(1956), 「잃어버린 사람들」(1958), 「너와 나만의 시간」(1964), 「탈」(1976)과 같은 단편집과 「카인의 후예」(1945), 「별과 같이 살다」(1950), 「인간접목」(1957), 「나무들 비탈에 서다」(1960), 「일월」(1962), 「움직이는 성」(1972), 「신들의 주사위」(1982)와 같은 장편소설을 발표하였다.

3) 이재선, 『황순원전집10』(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2), pp.467-480.

4) 상계서, pp.467-480.

5) 상계서, p.481.

그리고 김종하는 황순원의 통과제의적 소설의 특징적인 면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주인공은 동시에 두 개의 세계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무지에서 이해의 세계로, 선과 악의 세계로, 이질적인 세계로 대립되는 두 상황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소설 속에 포함될 때는 의식 자체가 상당히 상징화되거나 단편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손쉽게 발견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⁶⁾

라고 지적하면서 이질적인 두 세계가 상징화되어 있어서 쉽게 발견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태동은 또한 황순원의 통과제의 스토리와 관련하여 황순원의 초기 단편에 상징성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초기의 몇몇 단편에서 자연법칙에 지배되는 비극적인 인간상황을 취급하고 있으나, 인간이 그러한 상황을 감상적으로 슬퍼하지 않고, 그의 단단한 언어가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처럼 그것에 대해 반항하고 극복하려는 인간의지를 훌륭하게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그는 자연주의적인 인간상황과 인간정신을 성공적으로 결합시킨 상징주의 문학을 창조하고 있다.⁷⁾

이정숙은, 황순원은 통과제의적 스토리를 통해서 인간의 밑바닥에 깔린 정을 들추어내어 사회를 순화시켜 주는 이해와 신뢰, 사랑을 바탕으로 한 인물들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중요한 가치탐색을 그려내고 있다고 보고 있다.⁸⁾

전미리는 황순원의 단편소설의 통과제의적인 면을 자아(identity)의 개념과 연결하여서 연구하였다. 즉 주인공은 통과제의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주인공의 자아의 변모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새로운 세계에서 자아가 어떻게 확립되고, 성숙한 자아 확립의 세계로 도달해 나가는 특징을 살펴보았다.⁹⁾

임유정은 황순원 소설에 나타난 소년상 연구를 통해서 성장기에 나타나는 변화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소극적으로 수용하는 소년상의 모습을 통해서 시대현실을

6) 김종하, 『한국현대소설사』 (서울 : 홍성사, 1980), p.74.

7) 이태동, "실존적 자각과 미학적 현현," 『현대문학』, 제26권 제11호, 1980. pp.7~8.

8) 이정숙, "지속적 자아와 변모하는 삶 : 황순원론," 『한국근대작가연구』 (서울 : 삼지원, 1985), p.443.

9) 전미리, "황순원의 단편 소설 연구", 서울여대 석사학위논문, 1986.

외면한 순박과 따뜻한 인정의 세계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소년상을 통해서 인간의 숙명적인 고독의 의미와 인간관계를 추구하는 적극적인 삶의 방식을 황순원이 그려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¹⁰⁾

강선주는 황순원의 단편소설에 나타난 성장의 구조(initiation story)를 파악하고 주인공이 내적 성숙의 정도에 따라 '경험의 확산', '선과 악의 발견', '성숙'의 모티브로 구분하여 작품에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황순원이 통과제의 양식을 통하여서 그려내려고 하는 궁극적인 가치들을 지적하였다.¹¹⁾

이상의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통과제의 소설의 기본구조와 발전단계에 기초를 둔 치밀한 해석이라기 보다는 다분히 주제론적인 의미해석에 머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통과제의 소설의 구체적인 발전단계와 발전과정을 작품 분석의 구조와 틀로 제시하고, 그 분석의 결과를 통과제의 소설의 유형적 의미와 연결시켜 해석해 봄으로써 통과제의 소설 분석의 한 차원을 보이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및 범위

인류학에 이론적 기원을 두고 있는 통과제의 소설의 연구는 신화의 연구와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다. 현대소설에서는 '이니시에이션 스토리' 또는 '통과제의 소설'이란 명칭으로 불리면서 성장소설의 한 유형으로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우선,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통과제의 특성과 구조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단계는 이러한 통과제의 개념을 소설 분석과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통과제의 발전단계인 분리의례, 과도의례, 통합의례의 관점과 연결시켜 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나서, 통과제의 발전구조와 발전단계에 따라 본격적으로 텍스트를 분석한 뒤, 마지막 단계에서는 통과제의 성취단계에 따라 마르쿠스의 세 가지 통과제의 유형과 견주어 보고자 한다.

이 논문은 특별히 황순원의 「별」·「소나기」·「학」을 분석의 텍스트로 선정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이 세 작품은 고등학교 5, 6차 문학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10) 임유정, 「황순원 소설에 나타난 소년상 연구」, 인천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p.48.

11) 강선주, 「황순원의 성장소설(initiation story) 연구」,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p.73.

작품들일 뿐만 아니라 각기 통과제의의 서로 다른 의미와 과정들을 내포하고 있는 상징적인 작품들이기 때문이다. 「별」에서는 모성의 세계에 몰두해 있는 소년이 점점 성장하면서 현실을 받아들이는 과정과 갈등에 초점을 맞춰서 통과제의의 구조와 수용 양상을 고찰해 보고, 「소나기」에서는 사춘기 소년의 성과 사랑으로의 입문이라는 관점에서 통과제의를 적용시켜 보고자 한다. 또한, 「학」에서는 전쟁으로 인한 정신적 외상과 상처를 입은 주인공이 어떻게 상처를 극복하고 자신의 주체성을 깨닫게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통과제의를의 논리와 수용방법

1. 통과제의를의 양상과 전개과정

인간의 일생은 탄생, 사회적 성숙, 결혼, 죽음을 통과하며 이루어지는 하나의 주기로 되어 있다. 이러한 삶의 고비에서 수행되는 제식을 인류학에서는 '통과제 의'(rites of passage)라고 부른다. 이를테면, 출생에 따르는 출생의례, 미성년이 성년 이 되는 성년식(initiation), 가족을 이루게 되는 혼례식, 그리고 죽음에 따르는 장례 식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시련을 거쳐 성숙을 이 루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과시키는 '성년식'이다. 통과제의를의 후보를 가리키는 신참 자(neophyte)라는 단어는 땅에 묻혔던 낱알에서 싹터 오른 새 초목을 뜻한다. 통과 제의를는 인간이라는 씨앗을 성숙시켜서 완성시켜 줄 어떤 상태의 시작을 일컫는다. 그리고 낱알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다시 태어나기 위해 먼저 죽어야 한다. 통과제의 란 것은 무엇보다도 통과제의를를 거치게 될 대상의 존재론적 위치의 변화를 뜻한다. 엘리아데는 다음과 같이 그러한 점을 강조하였다.

시련을 겪은 후 소년은 통과제의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를 향유하게 된다. 그는 '다른 사람'이 된 것이다.…… 통과제의를는 신참자를 지역사회 속으로 진입시킬 뿐만 아니라 정신적 가치의 세계로 안내한다. 신참자는 성인다운 행동과 기술과 제도를 배 우게 되고 동시에 부족의 신성한 신화와 전통을 알게 된다.¹²⁾

그렇다면 이러한 통과제의를의 전달방식은 무엇이며 또한 그 결과는 어떤 것인가? 통과제의를의 전달방식은 근원적 현실을 재체험하게 하는 이야기로서 깊은 종교적 욕 구, 정신적 열망, 사회적 질서에 의한 구속과 요청, 현실적 욕구에 부응하는 이야기 로서 간주될 수 있다. 신참자가 통과제의를의 교육에서 얻어내는 핵심적 개념은 신성 한 힘의 존재에 의해 세계가 설명된다는 것이다. 신참자의 세계관도 변화된다. 그때

12) 시몬느 비에른느 지음, 「통과제의를와 문학」, 이재실 역(서울 : 문학동네, 1996), p.12.

부터 그는 세계의 의미와 사회의 의미를 알게 된다.

사실상 모든 통과제의의 목적은 최종의 통과제의인 죽음이라는 제의를 준비하는 데 있다. 죽음의 통과제의는 인간조건을 초극할 수 있게 한다. 통과제의는 그 자체가 재탄생의 의식이기 때문에 갱생의 영원한 가능성을 약속한다. 신참자는 이와 같은 통과제의를 거쳐서 행복한 내세에 대한 믿음을 얻게 된다. 통과제의는 죽음에 대해서 긍정적 기능, 즉 순수하게 영적인 '새로운 탄생', 시간의 파괴적 영향에서 벗어난 존재양식을 준비하는 기능을 부여한다.¹³⁾

일반적으로, 성년식의 통과제의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첫 번째 단계는 준비단계로써 어린이의 세계로부터의 분리를 뜻하며, 두 번째 단계는 시련극복의 단계로 육체적·정신적 시련을 인내하는 과정이다. 세 번째 단계는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는데, 그 전개 방식은 개인과 문화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다. 게네프(A. V. Genep)는 통과제의의 본질적인 전개 과정으로 '분리→과도→통합'을 가장 전형적인 패턴으로 제시하고 있다.¹⁴⁾ 이와는 달리 시몬느 비에른느는 통과제의의 과정을 '준비→피안으로의 여행→새로운 탄생'으로 언급하고 있다.¹⁵⁾

(1) 分離儀禮(준비)

분리의례(分離儀禮)는 지금까지 속해 있던 청소년들이 자신의 세계로부터의 분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분리의례는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되는데 통과제의의 준비과정에 해당한다. 즉 성소준비, 정화의식, 격리의식이 그것이다. 이때, 성소는 자연 안의 덩불일 수 있고, 신이 축성한 장소인 동굴 혹은 서당이 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수련자는 정화의식을 거치게 된다. 정화의식은 목욕, 삭발, 사원에 들어가서 제물 바치기, 단식, 금욕 등의 행위를 통해서 치루어진다. 마지막 단계인 격리의식은 어머니와의 격리요, 비입문자와의 격리를 의미한다. 신참자는 사원의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서 띠로 가리거나 망각주를 마심으로써 완전히 세속적 세계와 격리됨을 체험한다. 이로써 입문자는 통과제의의 준비과정을 완수하게 된다.

13) 전계서, p.129.

14) Arnold Van Gennep, *The Rites of Passage*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0), p.3.

15) 시몬느 비에른느, 전계서, pp.20-78.

엘리아데에 의하면, 분리의례는 모친으로부터의 분리를 뜻하며, 어린이의 세계는 곧 모친의 세계인 동시에 여성의 세계를 뜻한다. 이 세계는 어린이에게 있어서는 무책임, 행복, 무지, 무성(無性) 등으로 채색되어 있는 세계이며 동시에 세속적 세계¹⁶⁾로 인식된다. 입사식 후보자는 이러한 여성적·세속적 세계로부터 분리의례에 의해 더 높은 차원으로 상징적으로 이행하게 된다.

(2) 過渡儀禮(피안으로의 여행)

과도의례(過度儀禮)는 지금까지의 상태에서 분리된 개인이 애매하고 불확실한 경계성의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 상태는 그 이전의 상태도 아니고 새로운 상태도 아니다¹⁷⁾라고 게네프는 지적하고 있다. 왕빈에 의하면 이러한 상태는 관습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는데, 이는 죽음, 모태적 존재, 암흑(暗黑), 남녀 양성의 구유(具行), 황야(荒野) 등 다양한 상징으로 표현된다. 이것은 그 이전도 아니고 새로운 상태도 아니며, 속적 시간의 흐름이 정지된 무시간의 상태이며 속적 세계에서 격리된 신성한 세계, 신화적인 시간이다.¹⁸⁾

이러한 과도의례는 수련자들이 속적 세계나 속적 시간으로부터 격리된 상태 속에서 육체적, 정신적 시련을 인내하여 보다 깊은 의미를 갖는 종교적 지위나 지식을 취득하는 과정이다. 시몬느 비에른느에 의하면 이 과정은 죽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므로 극적인 형태를 띠게 된다는 것이다.¹⁹⁾ 먼저 신참자는 새로운 시련을 당하고 피안세계에 접근했다는 표시인 혼절, 의사무의식 상태인 가사(假死)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 때는 음식금기, 단식, 철야, 침묵 등의 고행과 통과제의적인 육신 해체인 채찍질, 불로 지지기, 인신 제물, 할례, 음핵 절제와 같은 고문을 받게 된다.

이제 죽음의 제의를 받아들인 신참자는 태아상태로의 귀환(모태회귀)의 과정에 들어선다. 이는 완전한 변화를 갈망하는 신참자들이 되돌아가야 할 무(無)의 상태요, 원초적인 혼돈의 상태이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들은 지옥 또는 천상세계를 여행

16) 왕빈, 「신화학 입문」 (서울 : 금란출판사, 1980), p.138.

17) 상계서, p.137.

18) 상계서, p.137

19) 시몬느 비에른느, 전계서, p.28.

하는 모티프와 만나게 된다. 따라서 신참자들은 새로운 존재양태에 접근하기 위해 우선 죽음의례와 만나야만 한다.

(3) 統合儀禮(재탄생)

분리의례와 과도의례 단계를 통과해 온 수련자는 이전의 자기는 일단 죽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 존재가 된다. 통합의례(統合儀禮)는 이들을 사회에서 맞아들이는 의례인데, 미성년자는 이 과정을 거쳐야만 성인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 단계에서 수련자는 불확정적·과도적 성적(學的) 세계로부터 일상적·세속적 세계로 복귀하여 새로운 지위와 역할을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재탄생의 모티프들은 괴물로부터의 탈출, 나오는 시늉, 깨어남, 유아상태 등으로 가장하거나 나체로 음식을 절제하며 더듬거리는 말투를 하게 된다. 이와 같은 통합의례 과정을 통과한 자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부여된다.

이제 지금까지의 설명을 바탕으로 하여 성년식 통과제의의 양상과 발전단계를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²⁰⁾



20) 왕빈, 전제서, p.137.

통과제의의 양상과 발전단계

분리의례(준비)	과도의례 (통과제의적 죽음)		통합의례(재탄생)
	진입의식	피안으로의 여행	
<p>○성소 준비 덤불 / 자연, 서당, 신이 축성한 장소, 미트라 동굴</p> <p>○정화 : 목욕, 삭발, 사원에 들어가기, 단식, 금욕</p> <p>○격리 : 어머니와의 격리, 비입문자와의 격리, 사원의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기, 띠로 가리거나 망각주 마시기</p>	<p>○유괴</p> <p>○혼절 (음료, 노래, 단식)</p> <p>○암벽통과</p>	<p>○시련, 가사(假死)</p> <p>* 고행 (음식금기, 단식, 철야, 침묵)</p> <p>*고문 : 통과제의적 육신해체(채찍질, 불로 지지기, 인신제물, 할례, 음핵절제)</p> <p>○ 모태회귀</p> <p>* 태아의 이미지</p> <p>* 동굴, 무덤</p> <p>* 집어삼키는 괴물</p> <p>* 원초적 혼돈, 어머니, 바다</p> <p>* 지옥 또는 천상 세계 여행</p>	<p>○험난한 탈출 괴물로부터의 탈출</p> <p>○행복한 일탈 나오는 시늉</p> <p>깨어남</p> <p>○ 유아상태 (나체, 음식, 더듬거리는 말투)</p> <p>○ 새로운 이름</p>
<p>지금까지의 지위로부터 분리</p>	<p>애매하고 불확실한 경계성의 상태</p>		<p>다시 태어난 존재로서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게 됨</p>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볼 때, 성년식(initiation) 통과제의란 어린이의 세계로부터 어른의 세계로 이행하는 경계지점에 마련되어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문화적 성숙의

체험과정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무책임하고 무지한 어린이의 세계에서 벗어나 보다 높은 존재 양식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이는 사회에서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자격을 획득하고 보다 높은 정신적, 문화적 가치의 세계에 편입되기 위하여 겪는 육체적·정신적 성숙과 성장을 위한 하나의 과업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과제의의 과정 속에서 신참자들은 분리, 과도, 통합의 세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충격과 경험을 쌓고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의식을 갖게 된다. 이러한 성년식이 갖는 사회적 기능은 사회인류학적인 연구와 심리학적 연구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있으나, 소설의 형식을 빌어 다양하게 재현된다. 전자의 연구에서는 주로 성년식에 의하여 수혜자와 기타 사회성원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을 돕고, 그 후의 사회생활에서도 그들이 적절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또한 성년식을 경험하기 이전의 소년들은 자유로웠으나 이 의례에 의하여 개인은 억압되고 선택과 행위에 따른 책임이 뒤따르게 되며, 그들은 여러 가지 사회적 규범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성년식을 거침으로써 소년은 모친에의 의존 원망과 부친에의 노골적인 반항이 정지되거나 단절되고, 사회의 성인 세계로 이입하여 동화(identity)되는 기능을 획득하게 된다.²¹⁾ 이제, 이러한 통과제의적 속성이 문학에 수용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2. 통과제의의 문학적 수용방법

이와 같은 성년식 통과제의의 논리가 어떻게 문학에 수용되는지를 밝히는 것은 통과제의 소설 연구의 첩경이 된다. 시대가 바뀌고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본성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인간은 시대에 따라 그 형식을 달리하지만, 종교나 연금술, 심리학 또는 여러 가지 제식을 통해서 새로 태어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과학 만능의 시대라 하더라도 인간의 그러한 근원적 욕구는 사라지지 않고 탐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통과제의는 인간의 문학적 상상력을 부추기는 아주 강력한 힘을 내포하고 있어서 문학 작품을 통해서 다양하게 재현된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일생을 살아가면

21) 전계서, pp.142-144.

서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다양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한 변화와 성장은 인간의 본성에 기인된다는 점에서 통과제의 연구는 인간 본성 탐구의 한 차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삶과 본성 탐구를 본질로 하고 있는 소설은 자연스럽게 인간의 통과제의적 욕망을 인간 이해와 인간 탐구의 한 차원으로 수용하기 마련이다. 한편, 장 루세(Jean Rousset)는 통과제의적 작품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독자의 통과제의의 욕구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진정한 작품은 건너갈 수 없는 문턱임과 동시에 금지된 이 문턱에 놓여진 다리로서 나타난다. 내 앞에 밀폐된 세계가 세워지지만 이 건물의 일부인 문이 빙긋이 열린다. 작품은 그 전체가 폐쇄이자 통로이며, 비밀이자 그 비밀의 열쇠이다. 그러나 으름가는 체험은 '신세계'와 '단절'의 체험이다. …… 어떤 변모에 끌려들어, 나는 새로운 창조를 준비하는 파괴에 참여한다. 작품을 주시한다는 것은 문턱을 넘어서서 시속으로 들어가 특정한 활동을 개시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우리의 존재양상의 재검토와 모든 관점의 이동이 포함된다.²²⁾

그러므로 인생의 성장단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신적·육체적 갈등을 해소하고 인간다운 삶을 이루려는 욕구가 행동으로 표현된 것이 통과제의의 문학이며, 신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고대문학의 전통 속에서도 이러한 통과제의의 모티프는 쉽게 발견된다. 이를테면, 「동명왕 신화」, 「유리왕 신화」 등을 비롯한 삼국시대의 전설, 고려 왕조의 신화와 조선시대의 소설 등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온달전」을 비롯한 「금원전」, 「김영전」, 「홍길동전」 등이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다.²³⁾

현대소설로는 황순원의 몇몇 단편과 김승옥의 「서울, 1964년 겨울」, 전상국의 「우리들의 날개」, 이문열의 「그해 겨울」 등이 성년식 소설²⁴⁾의 전형을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이러한 소설들은 '나'가 있게 한 중요한 경험을 부각시키면서 시련을 동반한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통과제의적 성격을 보여준다.

흔히, 통과제의 소설은 신입(참)소설(新人(參)小說), 입사소설(入社小說), 이니시

22) 시몬느 비에른느, 전제서, pp.143-144.

23) 김열규, 「한국민속과 문학연구」(서울: 일조각, 1982), pp.11-14.

24) 이광풍, 「제의와 동기 양식」, 「현대소설의 원형적 연구」(서울: 집문당, 1985), pp.123-152.

에이션 스토리(initiation story) 등으로 불린다. 이는 통과제의 소설이 청소년기의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시험하고 가르쳐서 성인 사회로 나아가게 하거나 성숙에 이르게 하는 한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이다.²⁵⁾

한편, 이니시에이션 스토리(initiation story)는 성년기에 다다른 청소년의 세계인식 및 자기발견의 체험을 그리는 '각성소설'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²⁶⁾ 그리고 주인공들이 충격과 자각을 통하여 성인세계에 이입하는 내용이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각성소설' 또는 (성인세계의) '입문소설'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 그러나 'initiation'이라는 말이 단독으로 쓰일 경우에는 인류학적인 의미에서 의식으로 이해되기 쉽고, '성년식'이라고 하면 지극히 제한적인 의미로만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필자는 '통과제의'로 통합하여 표기하기로 한다.

'통과제의'라는 용어는 브룩스(Brooks)와 워렌(Warren)의 「소설의 이해」(Understanding Fiction)에서 헤밍웨이(Hemingway)의 작품 「살인자들」과 앤더슨(Anderson)의 작품 「나는 그 이유를 알고자 한다」의 비평에서 언급된 이래, 현대 문학 비평에서 소설의 주제와 형식을 밝히는 데 자주 사용되어지고 있다.²⁷⁾

통과제의 개념을 문학에 수용하고자 할 때 주인공의 의식과 행동변화 등이 문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통과제의 소설의 주인공은 아직 성년기에 이입하지 못해 정신적·육체적으로 시련과 갈등을 겪는 청소년기(12-3세부터 22-3세까지)의 인물들로 제한된다. 통과제의 소설의 주인공들은 첫째, 개인이 자신의 판단에 의해 행동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형식화된 행동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비정상적인 환경에 처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을 포함하는 행동을 한다. 둘째, 어떤 개인적인 행동 유형이 강력한 심리적 강박에 의해서 결과되었을 경우이다. 그 외 원시적이거나 민속적인 형식화된 행동의 묘사나 인간의 마음 속 혹은 행동에 신화의 유사물을 암시하는 상징을 통해서이다. 즉, 문학적 의식(儀式)은 외적인 상황-강압적이거나 악의 요소를 지닌 상황-이 상징적인 형태의 요소(인물, 사건, 배경 등)들로 변이를 보이고 이러한 변이는 대처하는 인물의 행위를 말한다.²⁸⁾

브룩스는 주로 '통과제의'를 악의 발견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요컨대 어리거나 또는 젊은 주인공이 자신과 세계에 대한 지식의 의미 있는 한 변화를 제시하는 소설

25) 이재선, 전계서, p.469.

26) 김병욱 편저, "이니시에이션 소설이란 무엇인가?," 「현대소설의 이론」(서울 : 대방출판사, 1983), p.462

27) 상계서, p.460.

28) 상계서, p.461.

로 보고 있다. 이 경우 통과제의 소설은 교육적인 면에서 주인공에게 중요한 구실을 수행하게 한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교화의 결과라기보다는 직접적인 경험의 결과이다.

통과제의 모티프를 소설화 한 '성년식 소설'에 대한 비평가들의 여러 가지의 정의는 크게 두 개의 그룹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성년식을 외부세계에 대한 무지로부터 중대한 인식으로의 통과 과정으로 설명하고, 둘째는 이것을 중대한 자기 발견과 거기에서 결과되는 인생이나 사회와의 타협으로 기술하고 있다. 모르데카이 마르쿠스는 이러한 정의들을 체계화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이니시에이션 소설'이란 어린 주인공에게 주변 세계나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나, 성격, 또는 그 두 가지에 다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변화가 그들에게 성인의 세계를 지시해 주거나 거기까지 이끌어 가야만 한다. 여기에는 어떤 형식의 의식이 들어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지만, 들어 있다면 그 의식은 최소한 의 변화가 항구적인 결과라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라야만 한다.²⁹⁾

또한 마르쿠스는 통과제의 소설은 다양한 경험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종류도 다양하다고 논하면서 그 힘의 강도 및 영향의 종류에 따라서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³⁰⁾

첫째, 시험적(試驗的)(tentative) 통과제의 : 주인공이 성숙과 각성의 문턱에까지만 이끌려갈 뿐 결정적으로 문지방을 넘어서지 못하는 유형의 충격적 효과만을 강조하며, 이런 경우의 주인공은 유난히 나이가 어린 경향이 있다.

둘째, 미완적(未完成)(uncompleted) 통과제의 : 주인공을 성숙과 각성의 문턱을 넘어서게 한다. 그러나 어떤 확신을 찾으려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는 상태로 놓아두고 만다. 이 경우에는 그대로 자아발견까지가 포함된다.

셋째, 결정적(決定的)(decisive) 통과제의 : 주인공을 완전한 성숙과 각성에 다다르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주인공이 성숙에 이르는 결정적인 진로를 정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필자는 이상의 이론을 중심으로 하여 텍스트를 통과제의의 발전단계에 따라 분석한 뒤, 그 결과를 통과제의 소설의 유형적 특성으로 수렴시켜 보고자 한다.

29) 김병욱 편저, 전계서, p.463-464.

30) 상계서, p.464.

Ⅲ. 통과제의 소설의 구조와 의미

1. 시험적 통과제의 : 「별」

1980년 간행된 「늪/기러기」에 수록되어 있는 「별」은 「거리의 부사」, 「돼지계」, 「늪」, 「허수아비」, 「배역들」, 「갈대」 등과 함께 황순원의 초기 작품이다.

작품 「별」은 발견의 극화 과정을 다루고 있다는 소설이다. 모성의 세계에 집착해 있던 어린 소년이 현실을 경험하면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시켜 나가는가를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이 「별」에 대해 유종호는 다음과 같이 작품의 특성을 해석하고 평가하고 있다.

사내아이의 망모에 대한 미화와 집착, 미화된 어머니의 이미지를 깨뜨리는 누이에 대한 혐오심, 그리고 그를 통해 깨닫는 미추의식의 각성, 혐오의 대상이 보여주는 호의에 대한 반발 등, 인간심리의 텔리커시가 섬세한 문장 속에 감동적으로 포착되어 있다. 미추의식의 각성과 이에 따른 혐오의 발견 같은 것도 인간심리의 중요한 국면이라고 할 수 있으리라. 인간심리의 근원적인 국면을 그 발생기에 포착하여 다루고 있는 이 작품은, 드물게 보는 인간 통찰과 시가 결합된 수작이다.³¹⁾

유종호는 이 작품을 전반부에 초점을 맞춰서 어린 소년이 삶의 과정에 있어서 최초로 맛보게 되는 첫 번째 실망과 미추(美醜)에 대한 자각에 맞춰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선은 이와 더불어 죽음에 대한 통과제의적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죽음에 대한 충격적인 경험과 이러한 괴로운 경험에 대해서 자기를 적용하고 성숙하는 과정이 복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만큼 주인공의 죽음의 발견이 강조되어 있으며, 별이란 원방에의 간격이 설정됨이 효과적이다.³²⁾

31) 유종호 외, "서구소설과 한국소설의 기법," 『한국인과 문학사상』 (서울 : 일조각, 1968), p.297.

32) 이재선, 전계서, p.473.

이 소설의 통과제의적 구조는 순진무구한 모성의 세계에 집착해 있는 소년이 어떻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적응하고 성숙해 나가는가를 보여주는 데서 발견된다.

이제, 모성의 세계, 어린이의 세계에 있던 주인공이 현실을 인식하고 성숙과 각성의 문턱에 이르는 과정을 구체적인 작품 분석을 통해서 제시해 보기로 하겠다.

(1) 분리의례

아홉 살 난 동복이란 아이는 죽은 어머니와 자기 누이가 닮았다는 과수노파의 말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경험하면서 분리의례를 경험한다. 죽은 어머니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과 그리움은 아이가 모성의 세계, 어린이의 세계에 대한 처해 있음을 의미하는데, 입사지도자로 대변되는 과수노파의 말에 의해 모성의 세계에서 벗어나 한 차원 높은 성숙의 단계를 준비한다.

동네 애들과 노는 아이를 한 동네 과수노파가 보고, 같이 저자이라도 다녀오는 듯한 젊은 연인에게 무심코, 자 동복 누이가 꼭 죽은 자 오마니 닮았디 왜, 한 말을 얼김에 듣자 아이는 동무들과 놀던 것도 잊어버리고 일어섰다.³³⁾

매우 어려서 어머니를 잃은 아이는 누구보다도 어머니의 모습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다. 그러나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어머니의 모습은 아이에게 있어서 상당히 미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아이는 죽음에 대해서 이니시에이트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다. 이는 입사 이전에 아이가 가지고 있던 순진무구의 세계, 모성의 세계에 대한 집착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런 어린아이에게 도전이라도 하듯 과수노파는 소년의 어머니가 현실 속의 누이와 닮았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어머니의 모습을 누이에게서 찾으라는 충고를 통해 입사할 수 있게 한다.

아이의 얼핏 누이의 얼굴을 생각해내려 하였으나 암만해도 떠오르지 않았다. 집으로 뛰면서 아이는 저도 모르게 오마니 오마니, 수없이 외었다. 집뜰에서 이복동생을

33) 황순원, 『황순원대표작선집 6』 (서울 : 삼성출판사, 1970), p.227.

업고 있는 누이를 발견하고 달려가 얼굴부터 들여다 보았다. (중략) 아홉 살 난 아이의 눈은 벌써 누이의 그런 얼굴 속에서 기억에는 없으나 마음속으로 그려오던 돌아간 어머니의 모습을 더듬으며 떨리는 속으로 찬찬히 누이를 바라보았다. 참으로 오마니는 이 누이와 같았을까. (중략) 어머니가 누이처럼 미워서는 안된다고 머리를 옆으로 저었다. 우리 오마니는 지금 눈앞에 있는 누이로서는 흉내도 못 내게스레 무척 이뻐으리라.³⁴⁾

아홉 살난 어린아이는 서슴없이 누이에게로 달려간다. 그리고 얼굴을 찬찬히 살피기 시작한다. 아이는 돌아간 어머니의 모습을 누이에게서 발견하고자 하지만, 발견되는 것은 누이가 밍다는 사실뿐이다. 이러한 사실은 아이에게 미추의식이 싹튼 것을 의미한다. 누이는 밍고 어머니는 예쁘다는 말을 함으로써 소년의 미추의식은 더욱 분명해진다. 소년의 이와 같은 미추의식은 어린이의 세계로부터의 분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는 형식적인 미와 추를 알 뿐, 아직 내면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참다운 가치의 인식이라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오직 외면적인 미와 추만을 각성하고 있다. 그래서 소년은 누이에 대해 혐오감을 갖게 되고 또 과수노파를 찾아가서 어머니가 누이와는 달리 훨씬 예뻐움을 억지로 대답하도록 강요하고 한다.

아이는 곧 노파에게, 아니 우리 오마니하구 우리 뉘하구 같이 생겼단 말은 거짓말이디요? 했다. 노파는 더욱 수상하다는 듯이 아이를 바라보다가 그러나 남의 일에는 흥미 없다는 얼굴로, 왜 닮았다, 했다. 아이는 떨리는 입술로 다시, 아니 우리 오마니 입하고 뉘 입하구 다르게 생기디 않았이요? 하고 열심히 물었다. (중략) 그저, 그러구 보른 다르든 것 같기두 하군, 했다. (중략) 우리 오마니 닳뎀은 우리 뉘 닳뎀터럼 겹디 았구 이뻐디요? 했다. 과수노파는 아이가 가까이 다가와 어둡다는 듯이 갑자기 인두 든 손으로 아이를 물러나라고 손짓하고 나서 한결같이 흥없이, 그래앤, 했다. 그러나 아이만은 여기서 만족하여 과수노파의 집을 나서 그 달음으로 자기 집까지 뛰어오면서, 그러면 그렇지 우리 오마니가 뉘처럼 미워서야 될 말이나고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³⁵⁾

아이가 과수노파를 찾아가 발설 내용을 부인하게 한 사건은 현실에의 입사를 거

34) 전계서, p.227.

35) 상계서, p.228.

부한 것을 의미한다. 아이가 그만큼 내적인 입사 준비가 덜 되어 있고 미화된 어머니의 세계에 집착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이는 현실에의 통과제의를 거부하고자 한다. 그래서 아이는 현실로 대변되는 누이에 대한 반발과 혐오감을 한층 갖게 된다.

아이는 인형을 꺼내 들었다. 그러나 지금 아이는 이 인형이 여태까지 그렇게 이쁘던 얼굴이 누이의 얼굴이나처럼 미워짐을 어쩔 수 없었다. 곧 아이는 인형을 내다버려야 한다는 걸 느꼈다. (중략)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다. 칼끝으로 땅을 파 가지고 거기다 품속의 인형을 묻었다. 그리고는 그곳을 떠났다. 인형인가 누이인가 분간 못할 서로 얽힌 손들이 매달리는 것 같음을 아이는 느꼈다. 그러나 아이는 어머니와 다른 그 손들을 쉽사리 뿌리칠 수 있었다.³⁶⁾

아이에게 누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자신의 미화된 어머니의 이미지를 깨뜨리는 것이며 통과제의를 거치게 됨을 의미한다. 그래서 아이는 자신의 세계를 더욱 굳건히 구축하고자 누이를 거부한다. 누이가 만들어준 각시 인형을 땅 속에 파묻는 것은 자신이 미화시킨 어머니의 세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보상심리가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이것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오히려, 자신의 세계를 침입하고자 늘 따라 다니는 현실에 대한 혐오감과 반발의 또다른 표현이다.

어린아이는 외디푸스 콤플렉스에 미몰러 있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죽은 어머니의 실상은 현실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아이는 어머니를 찾고자 부르짖는다. 이러한 사실은 아이가 아직 죽음의 통과제의를 거치지 않은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일어난 아이는 당나귀 고삐를 쥐고 달구지 채로 해서 당나귀 등에 올라탔다. 당나귀가 제 꼬리를 물려는 듯이 돌다가 날뛰기 시작했다. 아이는, 그럼 우리 오마니는 뉘터럼 생겼단 말인가? 뉘터럼 생겼단 말인가? 하고 당나귀가 알아나 듣는 것처럼 소리를 질렀다. 당나귀가 더 날뛰었다. 아이의, 뉘터럼 생겼단 말인가? 하는 소리가 더 커갔다. 그러다가 별안간 뒤에서 누이의 데런! 하는 부르짖음 소리를 듣고 아이는 그만 당나귀 등에서 떨어지고 말았다.³⁷⁾

36) 전계서, pp.228-229.

37) 상계서, p.229.

아이의 누나에 대한 반발심의 또다른 에피소드의 하나이다. 아이의 미추의식의 기준은 외적인 아름다움이다. 아이가 가진 이런 미의식은 결국 누이의 배려와 보살핌을 거부하게 되고 계속해서 누이가 보여주는 호의에 대해 반발을 일삼는다.

의붓어머니에게 혼이 나도록 하기 위해 누이가 업은 이복동생의 불기짱을 꼬집어 울게 한다. 그러나 누이는 이런 동생을 감싸주려고 거짓말을 하는데 아이는 어머니 같은 애정이 풍겨오는 것을 느끼자 이를 거부하려고 어머니는 누이 같지 않다며 의붓어머니에게로 걸어가 자신이 꼬집었음을 고백한다.

또한 아이는 여러 알 붙은 옥수수를 뜯어먹기를 좋아하지만, 누이가 치마폭에 옥수수를 가지고 와서 주면 단박에 싫어하면서 이를 뜨물항아리에 버린다. 누이가 어머니처럼 군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더욱 누이가 어머니처럼 느껴질 적에는 더욱더 누이에게 반발한다. 아이에게 아름다운 것이란 어머니의 모습이라는 논리가 밝혀져 있다.

따라서 추한 누이가 마치 어머니나 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위선이요, 인정할 수 없는 혐오감의 대상일 뿐이다. 이런 아이에게 혐오의 대상인 누이가 호의를 베풀 때 아이의 반발은 거세진다.

아이의 이와 같은 미의식은 옆집 아이와 땅따먹기를 하는 데도 나타난다. 아이는 이제 끊임없이 아름다운 것을 식별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기 시작한다. 아이는 하찮은 것 같은 땅따먹기를 통해서도 자신의 미의식을 관철시키고자 하고 있다.

사실 아이의 어디까지나 반달 끝에다 한뼘 맘껏 둘러 채어 동그라미를 그어 놓았으면 얼마나 아름다울지 모르겠다는 계획을 옆집 애는 알 턱이 없었다. 아이는 반달 끝에서 옆집 애의 발까지의 길을 닦았다. 이번에는 꼭 맞춰 이 반달 위에 무지개 같은 동그라미를 그어 놓으리라. 아이의 입은 꼭 다물어지고 눈은 빛났다. (중략) 아이의 반달 끝이 이지러지게 그어졌다. 아이가, 이젠 왜 이렇게? 하고 고함쳤다. (중략) 이번에는 반달의 둥이 약간 살찌게 그어놓았다. 아이는 그래도, 것도 아냐! 했다. 그러는데 어느새 왔었는지 누이가 등뒤에서 옆집 애의 말을 빼앗아서는 동생을 도와 반달의 배가 부르게 굿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이는 누이가 채 굿기도 전에 손바닥으로 막 지워버리면서, 이젠 더 아냐! 이젠 더 아냐! 하고 소리질렀다.³⁸⁾

38) 전계서, pp.232-233.

이것은 아이의 미의식이 침예하게 그려진 에피소드이다. 아이는 내면에 미의식이 있어서 단순한 땅따먹기에서도 아름다운 원을 그리려고 하고 있다. 아이는 이것을 상상할 때 눈이 빛난다. 그러나 이것이 관철되지 못할 때 저항하게 된다. 친구와 누이는 이런 아이의 속도 모르고 반달을 애가 생각하는 무지개 모양의 반달이 아니라 찌그러지고 살찌고 배가 부르게 그려지게 한다. 아이는 이에 대해 분노하게 된다. 이제까지 아이는 추한 대상에 대해서는 반발함과 동시에 아름다움에 눈을 떠서 하나의 선에서도 미를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아이는 예쁜 뒷집 계집애와 누이가 싸우는 데도 뒷집 계집애가 이겨야 옳다고 생각한다. 이 판단기준은 어디까지나 뒷집 계집애가 예쁘기 때문이다. 아이는 미추의식을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생각한다. 옳은 것은 아름다운 쪽에 있다는 것이다. 아이는 미추의식을 통해, 사물의 아름다움과 추함을 가려낼 뿐만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까지 소유하게 된다. 과수노파의 말로 인해 아이는 미추의식에 기초한 가치관을 가진 아이로 성장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아이는 현실의 통과의례가 주어졌을 때 아이는 너무도 미숙함으로 인하여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만큼 아이는 어린이의 세계, 모성의 세계, 아름다움의 세계에 깊이 몰두해 있었다. 아이는 통과의례를 거부하는 가운데 미의식이 싹트고, 또한 어머니처럼 행동하는 추한 누이에 대한 혐오감이 싹트게 된다. 또한 미추의식에 기초하여서 현실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가치판단을 하게 된다.

이 작품에서는 아이가 분리의례를 경험하였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의식의 형성을 통해 상징적으로 분리의례를 경험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아홉 살된 어린아이에서 열네 살된 소년으로의 시간의 변화를 통해 아이가 어린이의 세계에서 분리되고 현실이라는 통과의례의 과도의례의 단계에 들어갔음을 보여주고 있다.

(2) 과도의례

열네 살이 된 아이는 마침내 타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의붓어머니와 아버지의 말로 대변되는 사회의 도덕적 규범과 가치의 수용, 누이의 죽음이라는 새로운 충격을 통해 과도의례를 경험한다.

열네 살의 소년이 된 아이는 뒷집 계집애보다 더 이쁜 소녀와 알게 되었다. 검고 맑고 깊은 눈하며, 깨끗하고 건강한 볼, 그리고 약간 노란 듯한 머리카락에서 풍기는 듯한 향기. 아이는 소녀와 함께 있으면서 그 맑은 눈과 건강한 볼과 머리카락 향기에 온전히 홀린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기만 하면 그만이었다. (중략) 그리고는 소녀의 얼굴을 언제까지나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소녀의 맑은 눈에도 연보랏빛 하늘이 가득 차 있었다. 이제 꺾임도 피어나리라. 그러나 이때 소녀는 또 자기만 말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아이에게 느껴지는 어떤 부족감을 못 참겠다는 듯한 기색을 떠올렸는가 하면, 아이의 어깨를 끌어당기면서 어느 새 자기의 입술을 아이의 입에다 갖다 대고 비비었다. 아이는 저도 모르게 피하는 자세를 취하였으나 서로 입술을 비비고 난 뒤에야 소녀에게서 물러났다.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아이는, 거친 숨을 쉬면서 상기돼 있는 소녀를 내려다보았다. 이미 소녀는 아이에게 결코 아름다운 소녀는 아니었다. 얼마나 추잡스러운 눈인가. 이 소녀도 어머니가 아니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아이는 소녀에게서 돌아섰다.³⁹⁾

열네 살이 된 아이는 이제는 형식적인 미와 추의 각성, 내면적인 아름다움의 미성숙에서 이제는 외면과 내면이 조화된 모습을 찾고자 한다. 아이는 지금껏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모두 갖춘 소녀를 만나게 된다. 그러나 외적인 아름다움은 모두 갖추었다고 할 수 있으나 소녀의 고르지 못한 숨소리에서, 눈빛에서 음란하고 추한 빛을 발견하자 실망하게 된다. 소년은 이제 형식적인 미의식과 함께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자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는 소년의 성장을 나타낸다. 소녀는 이제 외적인 아름다움과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갖춘 대상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찾기 시작한다.

하늘에 별이 별나게 많은 첫가을 밤이었다. 아이는 전에 땅 위의 이슬같이만 느껴지던 별이 오늘밤엔 그 어느 하나가 꼭 어머니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수많은 별을 뒤지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는 곧 안에서 누구를 꾸짖는 듯한 아버지의 음성에 정신을 깨치고 말았다. 아이는 다시 하늘로 눈을 부었으나 다시는 어느 별 하나가 어머니라는 환상을 붙들 수 없었다. 아쉬웠다. 다시 아버지의 누구를 꾸짖는 듯한 음성이 들려나왔다.⁴⁰⁾

39) 전계서, pp.234-235.

40) 상계서, p.235.

소년은 이제 어머니의 모습을 하늘의 별에서 찾고 있다. 소년은 현실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사건은 소년이 추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이제 현실에서 발견할 수 없자 하늘에서 튀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분명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이에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찾는 이상주의적인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다. 황순원 소설의 주인공의 변모과정을 이보영이 ‘주인공의 눈은 자기내부를 향해서 혹은 수평으로 뜨는 게 아니라, 어떤 빛을 찾아 위를 우러러보게 된다.’⁴¹⁾고 설명했듯이 소년은 이제까지는 현실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찾고자 하였다. 그러나 누이의 예쁘지 않은 모습으로 좌절되고 예쁜 소녀를 사귀었으나 예쁜 소녀의 눈 속에서 추악함을 발견하고 좌절된다. 이제 소년은 과거의 외디푸스적 환상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본질을 알았을 때 비로소 이상주의자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주의도 아버지의 목소리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좌절된다. 어머니의 세계가 이상의 세계라면 한 청년과 연애 중이던 누이를 꾸짖는 아버지는 속된 현실로써 소년의 이상주의는 현실사회로 대변되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자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어머니의 세계에 대한 의식을 키워주는 역할이 아니라 어머니의 세계를 인정치 않는 세계이다. 아버지는 하늘을 쳐다보도록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고 현실의 추악함을 보도록 하는 세계이다. 현실의 추악함이 보였을 때 가차없이 처벌을 가하는 속적인 세계이다. 소년은 이제 점차로 현실의 세계로 적응, 동화되어 나가기 시작한다.

안에서 아버지가, 두 번 다시 그런 눈치만 뵈단 봐라, 죽여 없애구 말 테니, 꼭대기 피두 안 마른 년이 누굴 망신 시킬려구, 하는 품이 누이 때문에 여간 노한 게 아닌 것 같았다. 좀한 일에는 노하는 일이 없는 아버지가 이렇도록 노함에는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음에 틀림없었다. (중략) 이젠 학교두 그만되라 하는 아버지의 고향에, 누이 아닌 아이가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중략) 요사이 차차 의붓어머니가 어렵고 두렵기만 한 게 아니고 진정으로 자기네를 끌고루 위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아이는, 동복인 누이의 일로 의붓어머니를 걱정시키는 것이 아버지에게보다 더 안됐다고 생각됐다. 다시 의붓어머니의 초심성 있고 은근한 음성으로, 너두 생각이 있잖

41) 이보영, “황순원의 세계,” 『황순원전집12』 (서울 : 문학과 지성사, 1985), p.290.

다만 이제 네게 잘못이라두 생기른 땅속에 있는 너의 어머니한테 어떻게 내가 낮을 들겠니, 함에 아이는 이번에는 의붓어머니의 애정에 얼굴이 달아오르면서, 정말 누이가 돌아가신 어머니까지 들추어내게 하는 일을 저질렀다가는 용서 않는다고 절로 주먹이 쥐어졌다. 어디서 스며오듯 누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두 번 다시 그런 일만 있었단 봐라, 초매(치마)루 묶어서 강물에 집어넣구 말디 았나, 하는 아버지의 약간 노염은 풀렸으나 아직 엄한 음성애, 아이는 이번에는 또 밤바람과 함께 온몸을 한 번 부르르 떨었다.⁴²⁾

한 반 친구의 오빠와 연애하던 누이의 일을 집에서 알았을 때의 일이다. 이 일로 인하여 아버지와 의붓어머니는 합당한 제재를 가하고자 한다. 여기서 아버지와 의붓어머니의 내린 처사는 사회의 도덕적 규범과 가치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아이는 이제 성숙하여서 이러한 사회의 도덕적 규범과 가치를 받아들이고 있다. 아홉살 적에는 자기 세계에 몰두하였었는데 이제 타자를 인식해 가면서 어머니를 다른 소녀에게서 찾는다는 아버지와 의붓어머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 아버지의 노기 띤 음성을 듣고 아이는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음을 깨닫고 있다. 여기서 아이는 아버지의 존재 가치를 인식하고 있다. 아이에게 있어서 사건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을 통해서 그 일의 심각성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기준이 서고 있다.

그리고 의붓어머니도 아무 편견없이 자신들을 위하는 존재로 느껴지고 있다. 아이는 이 아버지의 존재와 의붓어머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있다. 의붓어머니는 이 일이 돌아가신 어머니 앞에서 떳떳치 못한 일임을 판단하고 있다. 또한 아버지는 이 일을 치마로 묶어서 강물에 던짐을 받아야 할 심각한 일로 판단하고 있다. 아이는 그들의 판단과 제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의붓어머니의 판단 앞에서 똑같이 반응하고 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들추어내는 일을 저질렀다가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또한 아버지의 판단에 자신도 동화되어 온몸이 부르르 떠는 분노를 느끼고 있다.

아이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도 똑같이 누나에게 제재를 가하고자 한다. 실제로 누이에게 치마로 묶어서 물에 빠치우는 장난을 치려고 한다. 아이는 무의식에서건만 상당히 사회의 윤리와 도덕률에 지배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아이는 이런 누이에 대해서 사회의 윤리와 도덕률로 판단하므로 누이가 시집

42) 황순원, 전계서, p.236.

갈 때도 누이가 자신을 찾는 것을 알면서도 나오질 않는다. 여기까지 아이는 현실을 수용함으로써 하늘의 별에서 형식적, 내면적 아름다움을 갖춘 어머니의 모습을 별에서 찾음으로 이상주의적인 경향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속적 세계의 현실인 누이로 인해 아버지와 의붓어머니의 혼계를 받아들이므로 인해 아이는 사회의 도덕과 가치기준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나 현실의 근원적인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에의 통과제의를 거치지는 못하였다. 그래서 아이는 지금까지는 편협적, 맹목적으로 현실을 받아들여왔다.

아이가 성인으로서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기준을 가지기 위해서는 죽음에의 통과제의를 거쳐야만 한다. 이것을 거치지 않고는 아이는 현실의 본질을 파악하기가 힘들다. 지금까지 현실로 대변되는 것들은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것들뿐이다. 아이의 나이에 맞는 현실 인식일 뿐이다. 아이가 현실의 외적인 미추의식과 사회적인 도덕관념을 뛰어넘어 현실의 본질을 인식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 더불어 아이는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 아이는 지금까지는 어머니와 같은 누나의 존재를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하였다. 자신의 미추의식으로, 사회의 도덕관념으로 누나를 판단하고 반발하고 거부해 왔던 것이다. 이는 아이의 미숙한 모습을 나타낸다. 이제 아이는 누나의 부고를 듣고 나서 죽음에의 통과제의에 들어서게 된다.

아이는 언뜻 누이의 얼굴을 생각해내려 하였으나 도무지 떠오르지가 않았다. 슬프지도 않았다. 그러다가 아이는 지난날 누이가 자기에게 만들어 주었던, 뒤에 과수노파가 사는 골목 안에 묻어버린 인형의 얼굴이 떠오를 듯함을 느꼈다. 아이는 골목으로 뛰어갔다. 거기서 아이는 인형 묻었던 자리라고 생각키우는 곳을 손으로 폈다. 흙이 단단했다. 손가락을 세워 힘껏 힘껏 파냈다. 없었다. 짐작되는 곳을 또 파보았으나 없었다. 벌써 썩어 흙과 분간치 못하게 된 지가 오래리라. 도로 골목을 나오는데 전처럼 당나귀가 매어있는 게 눈에 띄었다. 그러나 전처럼 당나귀가 아이를 차지는 않았다. 아이는 달구지체에 올라서지도 않고 전보다 쉽사리 당나귀 등에 올라탔다. 당나귀가 전처럼 제 꼬리를 물려는 듯이 돌다가 날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이는 당나귀에게나 처럼, 우리 널 왜 짊엔! 왜 짊엔! 하고 소리 질렀다. 당나귀가 더 날뛰었다. 당나귀가 더 날뛰수록 아이의, 왜 짊엔! 왜 짊엔! 하는 지름소리가 더 커갔다. (중략) 그러나 아이의 눈에는 그제야 눈물이 괴었다. 어느 새 어두워지는 하늘에 별이 돌아났다가 눈물 권 아이의 눈에 내려왔다. 아이는 지금 자기의 오른쪽 눈에 내려온 별이 돌아간 어머니라고 느끼면서, 그럼 왼쪽 눈에 내려온 별은 죽은 누이가 아니냐는 생각에 미

치자 아무래도 누이는 어머니와 같은 아름다운 별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머리를 옆으로 저으며 눈을 감아 눈 속의 별을 내몰았다.⁴³⁾

아이가 인형을 파보는 장면은 죽음에 대한 미화와는 다른 성인적인 인식에의 입사과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제시하는 장면이다.⁴⁴⁾ 즉, 이 인형은 아이가 누이의 분신이라고 생각하여 아홉 살 적에 버린 것이다. 인형을 누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어머니의 세계, 미의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각시인형을 희생 제물처럼 매장했던 것이다. 아이는 그 당시 매장하면서도 즉, 형식적인 죽음의 의식을 치렀지만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다. 아이는 그 당시만 해도 묻히는 인형이 살아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아이는 죽음이라는 것은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간수해주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아이는 누이의 기억나지 않은 얼굴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인형을 파보는 장면은 죽음을 바로 보게 하는 것이다. 아무리 파보아도 없었다. 벌써 썩어 흙과 분간치 못하게 된 지가 오래리라 하고 아이가 깨닫는 것이다. 이는 아이가 죽음의 실체를 파악한 것이다.

죽음은 현실의 아름다운 모습이든 추한 모습이든 그대로 간직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죽음은 이 모든 것을 무로 만들어 버린다. 흙과 같이 아무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린다. 아이는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다. 죽음이라는 통과제의를 인식함으로써 아이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게 된다. 즉 밭길 추하건, 울건 그르건 이 모든 것은 죽음과 함께 땅 속에 묻혀질 수밖에 없음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다. 아이는 이제야 누나의 실체를 바로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을 인식하자 아이는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고 있다. 아이는 비로소 죽음의 공포로 인해 부르짖어대고 있다. 아이는 이제까지 현실에의 통과제의를 경험한 것이다. 그러나 이 경험의 충격적인 효과만을 강조하고 있지 주인공이 어떤 확신을 찾고자하는 모습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여기서 별은 단지 미의 대상으로서의 별이 아니다. 죽음이라는 통과제의를 경험하기 전에는 미의 대상으로서의 별이었지만 통과제의를 경험한 후에는 생과 사의 격절성을 의미하는 하나의 거리감의 표상으로서의 별이 된다. 소년이 끝내 누이의 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완전하게 죽음의 통과제의를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말해준다. 단지 소년은 죽음을 인식하고 충격으로 고통받고는 있으나 누나의 별을 인식

43) 전계서, pp.238-239.

44) 이재선, 전계서, p.476.

하지 못하는 것은 완전한 각성과 성숙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다시 말해 소년은 누이의 죽음을 통해 정신적 성숙과 각성의 문턱에까지는 이끌려 가나 결정적으로 죽음의 통과제의를 넘지 못하고 단지 죽음으로 인한 경험의 충격성이라는 효과만을 남긴다는 점에서 이 소설은 시험적 통과제의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제, 지금까지의 설명을 토대로 하여 주인공의 통과제의적 체험과 전개 과정을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별」에 나타난 통과제의의 전개 과정

분리의례	→	과도의례
<p>① 과수노파의 말로 현실에 통과제의에 입문하도록 하였으나 아이는 너무 어린 관계로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로 인해 아이의 내면에는 독특한 미추의식이 생긴다.</p> <p>② 미추의식으로 말미암아 누이에 대한 반발과 혐오감을 느끼고 아름다운 것에 애정을 느끼며 아름다운 것을 추구함</p> <p>③ 죽은 어머니는 절대적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누이는 추함의 상징으로 각인되어 있음.--미추의식의 형성은 분리의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p> <p>④ 아홉 살에서 열네 살로의 시간적 변화가 분리의례가 일어났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p>	→	<p>① 타자 인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쁜 소녀에게서 아름다운 어머니의 이미지를 찾으려 함. 그러나 소녀의 눈에서 추악함을 보고 미의 실체로서 다시 별을 보게 됨 - 아버지와 의붓어머니의 말을 통해 누나의 연애사건을 판단하고 사회의 도덕적 규범과 가치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이를 통해 아버지와 의붓어머니를 어머니와는 다른 존재로 인식함. <p>② 죽음 인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형 파보기를 통해서 미추가 옳고 그름의 판단기준이 될 수 없음을 깨닫는다. <p>③ 죽음에 대한 공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나귀 위에서 부르짖음. 성숙과 각성의 문턱에 이르렀음을 의미함. <p>④ 생(生)과 사(死)의 격절성을 의미하는 별을 끝내 거부함으로써 결론적으로 죽음의 통과제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p>
경험과 각성의 단계		제의의 완전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함 (시험적 통과제의)

2. 미완적 통과제의 : 「소나기」

「소나기」는 황순원이 단편소설 작가로서의 위치가 확립되어질 무렵에 쓰여진 소설이다.⁴⁵⁾ 이 소설은 사춘기에 접어들려는 소년 소녀 사이의 마음의 교류를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이재선이 '성에 눈뜨게 되는 사춘기의 소년 소녀의 애뜻한 초련의 경험을 통해서 인생입문의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겪게 되는 외상적인 아픔과 정서적인 충격을 다루고 있다.'⁴⁶⁾고 평가했듯이 이 작품은 어린 주인공으로 하여금 유년기 혹은 사춘기를 벗어나 성숙한 인간으로 변화, 변모되는 과정에서 겪는 시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작품은 아직 성(性)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린 주인공들이 등장하여 성과 사랑에 눈뜨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소년의 내면에 일어나는 심리적 변화를 중심으로 순진무구한 소년이 어떻게 성(性)에 눈뜨고 사랑을 경험하면서 죽음이라는 통과제의의 충격과 상처와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게 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분리의례

통과제의에서 분리의례란 주체가 지금까지 그가 속해 있던 세계로 분리되기 위해 겪는 제의적 시련을 일컫는 말이다. 인류학에서 분리의례는 성소준비->정화->격리의 단계로 실행된다.

먼저 이 작품은 소년의 성적 무지의 세계와의 분리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소년은 개울가에서 소녀를 보자 곧 윤초시네 증손녀딸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중략) 벌써 며칠째 소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물장난이었다. 그런데 어제까지는 개울기슭에서 하더니 오늘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서 하고 있다. 소년은 개울둑에 앉아 버렸다. 소녀가 비키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요행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길을 비켜 주었다.⁴⁷⁾

45) 이 소설은 1953년 「신문학」 제4집에 발표되었다.

46) 이재선, 전제서, pp.478-479.

47) 황순원, 「황순원대표작선집 5」 (서울 : 삼성출판사, 1970), p.271.

여기서 소녀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소년과 사귀고 말을 걸어오게 하기 위하여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 있다. 소녀는 계속적으로 물 속에서 자기를 바라본다. 이는 소녀가 사춘기 적에 겪는 자기 도취적인 나르시시적인 행위로서 그는 자기의 모습을 새롭게 인식하고자 한다. 이성을 통해서 자기의 상을 찾고자 의도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소녀의 이런 준비와는 달리 소년은 전혀 이런 준비조차 되어 있지 못하다. 그는 소녀의 의도를 깨닫지도 못한다. 이런 소년에게 소녀는 “바보”라고 하면서 물리적인 조약돌을 던지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하여 노골적으로 소년의 의식 세계에 충격을 준다. 소녀가 던진 조약돌을 소년의 무지의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도록 충동질하는 하나의 동기로 작용한다.

어제처럼 개울을 건너는 사람이 있어야 길을 비킬 모양이다. 그러다가 소녀가 물 속에서 무엇을 하나 집어낸다. 하얀 조약돌이었다. (중략) ‘이 바보’ 조약돌이 날아왔다. (중략) 단발머리를 나풀거리며 소녀가 막달린다. 갈밭사잇길로 들어섰다. 뒤에는 청량한 가을 햇살 아래 빛나는 갈꽃뿐(중략) 문득 소녀가 던진 조약돌을 내려다보았다. 물기가 걸척 있었다. 소년은 조약돌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48)

소년은 아직도 구체적으로 이 조약돌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다. 단지 소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허전함을 느낄 뿐이다. 소년은 그 소녀가 조약돌을 던진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아내기 위해 소녀와 똑 같은 방식으로 개울가에 앉아서 물장난을 한다.

그러한 어떤 날, 소년은 전에 소녀가 앉아 물장난을 하던 징검다리 한 가운데 앉아 보았다. 물 속에 손을 잠갔다. 세수를 하였다. 물 속을 들여다보았다. 검게 탄 얼굴이 그대로 비치었다. 싫었다.

소년은 두 손으로 물 속의 얼굴을 움키었다. 몇 번이고 움키었다. 그러다가 깜짝 놀라 일어나고 말았다. 소녀가 이리 건너오고 있지 않느냐.

숨어서 내 하는 꼴을 엿보고 있었구나. 소년은 달리기 시작했다. 디딤돌을 헛짚었다. 한발이 물 속에 빠졌다. 더 달렸다.

몸을 가릴 데가 있어 뚫으면 좋겠다. 이쪽 갈밭도 없다. 메밀밭이다. 전에 없이 메밀꽃 내가 짜릿하니 코가 찌른다고 생각됐다. 미간이 아찔했다. 찻찻한 액체가 입술에 흘러들었다. 코피였다.

48) 전계서, pp.271-272.

소년은 한 손으로 코피를 훔쳐내면서 그냥 달렸다. 어디선가, 바보, 바보 하는 소리가 자꾸만 뒤따라오는 것 같았다.⁴⁹⁾

그러나 소년은 물 속을 응시하는 행위를 통해서도 자신의 내면에 있는 욕구를 느끼지 못한다. 그는 단지 그의 검게 탄 얼굴만을 볼 뿐이다. 소년은 이성에 대해 무지상태에 있기 때문에, 소녀가 던진 조약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 답답해 한다. 그래서 그는 연거푸 물 속의 얼굴을 움킨다.

이 연거푸 물을 움키는 것은 분리의례의 정화의식을 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때 소녀가 나타난다. 소녀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소년은 놀라게 된다. 소녀는 자신이 사춘기 소녀로서 자각하고 있는 반면, 소년은 소녀 앞에서 자신의 무지가 여지없이 드러남으로 인해 당황하게 된다. 소년은 자신이 과거 행동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본 소녀가 그것도 모르냐며 비웃는 것 같아 자신을 숨기고 싶은 욕구가 일어 도망치게 된다. 이 사건을 통해서 소년은 소녀의 존재 앞에서 자신의 무지가 여지없이 드러나게 된다. 그는 자신이 무지를 인식하고 그 세계에서 빠져나오고자 할 때 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된다. 미간이 아찔해지고 코피도 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소년이 성인 사회에 입문하기 직전 자신의 순진무구한 어린이 세계와 결별하고자 할 때 생겨나게 되는 정신적인 혼란이다. 소년은 이 과정을 통해서 무지하고 순수한 어린이의 세계와 결별, 격리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소년은 진정으로 자신이 성과 사랑에 무지함을 깨닫게 되고 이에 입문하게 되는 준비과정을 완수하게 된다. 여기서 소년은 성공적으로 성인입문의 분리의례를 행한 셈이다.

(2) 과도의례

인류학의 통과제의 중 과도의례는 주인공이 분리의례를 통해 진입의식의 과정을 거쳐 피안으로의 여행이나 이입하는 것을 뜻한다.

「소나기」에서 분리의례의 과정을 통과한 소년은 편안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49) 전계서, pp.272-273.

성인식으로 입사하게 된다. 다음날은 조금 어색한 면이 있지만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소녀가 있는 것을 개의치 않고 건너간다. 그리고 말을 주고받음으로써 비로소 그 두 사람 사이에는 친화관계가 형성되게 된다. 이제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겪게 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성(性)과 사랑의 인식을 향해 나아간다.

갈림길에 왔다. 여기서 소녀는 아래편으로 한 삼마장썰, 소년은 그대로 한 십리 가까잇길을 가야 한다.

소녀가 걸음을 멈추며,

“너 저 산너머에 가본 일 있니?”

별 끝을 가리켰다.

“없다.”

“우리 가보지 않으련? 시골 오니까 혼자서 심심해 못 견디겠다.”

“저래뵈두 멀다.”

“멀은 얼마나 멀겠게? 서울 있을 때 아주 먼 데까지 소풍갔었다.”

소녀의 눈이 금세, 바보, 바보, 할 것만 같았다.⁵⁰⁾

이제 두 사람은 통과제의의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과도의례인 진입 의식과 피안으로의 여행에 들어가게 된다. 그 첫 단계로 속세와 떨어진 곳, 어린이의 세계와 떨어진 곳으로 떠나야만 한다. 이제까지 소년이 경험해 온 것과는 다른 제식이 일어나는 곳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바로 이것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산’을 통해 상징화되어 나타나 있다. 이 산은 소년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산이요, 소녀와 단들이 함께 하는 산이다. 그러므로 산은 경험의 장소로 마련되어 있다. 마음의 준비가 된 소년은 제의에 자발적으로 응하고 나아가게 된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분리의례의 첫 번째 단계인 진입의식에 나아가게 된다. 이 의식은 혼절인데, 엑스터시스나 트랜스 상태, 의사(擬似)무의식 상태로 나아가게 된다. 이 상태를 통해서 신참자의 근본 인격이 제거된다. 소년은 바로 이 어질어질하는 의사무의식 상태를 통해서 성(性)을 깨닫게 된다.

소녀의 걸을 스쳐 그냥 달린다. 배짱이가 따끔따끔 얼굴에 와 부딪친다. 쪽빛으로

50) 전계서, pp.273.

한껏 개인 가을하늘이 소녀의 눈앞에서 맴을 돈다. 어지럽다. 저놈의 독수리, 저놈의 독수리, 저놈의 독수리가 맴을 돌고 있기 때문이다.⁵¹⁾

무의식 상태에서 소년은 처음으로 자신의 또 다른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 그가 그토록 물을 움키면서 물 속에서 발견하고자 했던 자아에 대한 상이 비로소 하늘에서 나타나게 된다. 그것은 하늘을 나는 독수리이다. 독수리는 여기서 남성을 상징하고 소년의 성(性)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테면, 힘차며 집요한 남성의 성적 특성을 상징한다.

이제부터 소년은 자신의 성(性)의 자화상을 발견하게 되고 소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 이제까지 성적(性的) 무지로 인해 서먹서먹하고 끌려 다녔던 관계가 능동적, 적극적으로 변화된다.

있을 비틀어 팽개친 후 소녀에게 한 밀 건넨다. 그리고는 이렇게 먹어야 한다는 듯이 먼저 대강이를 한 입 베물어 낸 다음, 손톱으로 한 돌의 껍질을 벗겨 우적 깨문다.

소녀도 따라 했다. 그러나 세 입도 못 먹고,

“아, 맴고 지려.”

하며 집어던지고 만다.

“참 맛없어 못 먹겠다.”

소년이 더 멀리 팽개쳐버렸다.

산이 가까워졌다.

단풍잎이 눈에 따라왔다.

“야아!”

소녀가 산을 향해 달려갔다. 이번은 소년이 뒤따라 달리지 않았다. 그리고도 곧 소녀보다 더 많은 꽃을 꺾었다. (중략)

소녀는 마타리꽃을 양산 받듯이 해 보인다. 약간 상기된 얼굴에 살풋한 보조개를 떠올리며.

다시 소년은 꽃 한 움큼을 꺾어 왔다. 싱싱한 꽃이지만 골라 소녀에게 건넨다.⁵²⁾

이제 소년은 점차 소녀에 대해서 조금씩 적극적이 된다. 그는 소녀에게 무 먹는 것을 가르치고 무맛을 보도록 했을 때 소녀가 무맛을 거절했을 때도 소년은 겸연쩍어하기 보다는 소녀보다 더 멀리 무를 팽개친다. 또한 이제는 무작정 소녀를 따라

51) 전계서, p.274.

52) 상계서, pp. 274-275.

달리지 않는다. 그리고 소녀를 기쁘게 하는 것이 꽃임을 알았을 때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 움큼씩 여러 번 꺾어주게 된다. 소녀의 성(性)에 관심을 가지고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다.

맞은편 풀썩기에 오손도손 초가집이 몇 모여있었다.

누가 말한 것도 아닌데 바위에 나란히 걸터 앉았다. 별로 주위가 조용해진 것 같았다.

따가운 가을 햇살만이 말라가는 풀 냄새를 퍼뜨리고 있었다.⁵³⁾

이제 소년은 소녀와 서로 알게 됨으로써 무지로 인한 두려움이나 서먹서먹함이 사라진다. 또한 소년의 마음이 꽃을 통해 소녀에게 전달된다. 그래서 이심전심으로 마음이 통해서 그들은 바위에 오손도손 나란히 앉게 된다. 말하자면 사랑과 우정, 친화의 감정 등이 싹트게 된다. 이러한 만남이 좀더 깊어져 피부접촉에 이른다. 소녀가 칙꽃을 꺾다가 미끄러지면서 피가 나고 소년이 이것을 치료해 준다.

소녀의 오른쪽 무릎에 핏방울이 내 맺혔다. 소년은 저도 모르게 상처기에 입술을 가져다대고 빨기 시작했다. (중략)

소년이 고삐를 바투 잡아쥐고 등을 긁어주는 척 훌쩍 올라탔다. 송아지가 경충거리며 돌아간다.

소녀의 흰 얼굴이, 분홍 스웨터가, 남색 스카트가, 안고 있는 꽃과 함께 범벅이 된다. 모두가 하나의 큰 꽃뭉치 같다. 어지럽다. 그러나 내리지 않으리라. 자랑스러웠다. 이것만은 소녀가 흉내내지 못할 자기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이다.⁵⁴⁾

지금까지 소년은 소녀의 마음을 알고 있어서 소녀의 육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소녀의 성(性)을 점진적으로 인식해 왔다. 이제까지는 부분적으로 느껴왔던 것들이 이제는 종합적으로 하나의 대상으로 분명하게 인식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도 역시의 사무의식 상태에서 이제까지 명확히 알지 못했던 소녀의 자아상을 발견하게 된다. 소녀의 흰 얼굴과 분홍 스웨터와 남색 스카트, 안고 있는 꽃과 함께 이제는 하나의 큰 뭉치로 비로소 소녀를 바라보게 된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소녀에 대한 의견까지 내비치고 있다. 소녀의 모습을 꽃뭉치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53) 전개서, p. 275.

54) 상계서, p. 276.

사실 이 꽃은 소년의 관심을 사도록 한 꽃이요, 소녀가 자신을 포장하기 위한 그런 꽃으로서 소년과 완전히 가까워지기까지는 버리지 않는 꽃이다. 소년은 이런 꽃으로 대변되는 소녀의 내면세계를 간파하였다. 소년은 이제까지와는 달리 소녀의 성(性)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리고 소년은 이런 소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반면 또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소녀가 할 수 없는 것을 즉, 남성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된다. 비로소 소년은 성(性)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다. 소년은 이 깨달음이 너무도 자랑스러웠다. 이 깨달음은 송아지 위에서 얻은 것이므로 소년은 여기서 내려오지 않고자 한다. 여기까지 해서 소년은 진입의식의 단계를 밟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성(性)에 대한 통과제의를 거쳐왔으나 이성간의 사랑에 대한 통과제의를 아직은 거치지 않았다. 이 사랑이라는 실존적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소년은 크나큰 경험을 치르게 된다. 이제 소년은 과도의례 중에서도 피안으로의 여행을 떠나야만 한다. 소년은 피안으로의 여행에서 먼저 시련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시련의 단계는 통과제의적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소나기의 시련을 의미한다. 이 소나기는 실제로 연약한 소녀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시련으로 주어진다. 그러나 소년은 이 소나기로 인한 시련을 잘 참고 잘 견디면서 점점 모태회귀로 나아가게 된다. 모태회귀의 모티프로는 동굴이나 태아 상태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곳이다. 이 소설에서 모태회귀는 원두막, 더 강렬하게는 수숫단 안이다.

소녀는 소나기를 맞음으로써 인간의 궁극적 통과제의인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소년과 소녀의 사랑은 이런 일련의 의식들을 거치는 가운데 더욱 깊어지게 된다. 이런 의식들 가운데서 소년의 소녀에 대한 사랑은 정서적인 아픔과 충격을 받는 데도 이를 잘 수용하고 참아내면서 이와 더불어 소년의 내면에 영구적인 사랑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 먼저 이들은 소나기를 통해서, 이를 피하는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가까워지게 된다. 소나기라는 시련을 견디기 위해서 소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즉 그는 연약한 소녀가 소나기의 혹독한 시련을 잘 참아내도록 돕는 가운데 자신은 이 시련을 더 잘 참아내게 된다. 그는 소녀를 위해서 원두막에서 다시 수숫단으로 옮기고 또한 비에 젖은 소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녀를 무명 겹저고리로 싸주고 자신의 남아 있는 온기로 소녀를 보호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소년은 시련을 극복하고 점점 모태회귀의 이미지

로까지 나아간다.

무명 겹저고리를 벗어 소녀의 어깨에 싸주었다. 소녀는 비에 젖은 눈을 들어 한번 쳐다보았을 뿐, 소년이 하는 대로 잠자코 있었다. 그리고는 안고 온 꽃묶음 속에서 자가 꺾이고 꽃이 이글이진 송이를 골라 발 밑에 버린다. (중략)

수숫단 속은 비는 안 새었다. 그저 어둡고 좁은 게 안됐다. 앞에 나왔은 소년은 그냥 비를 맞아야만 했다. 그런 소년의 어깨에서 김이 올랐다. 소녀가 속삭이듯이, 이리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괜찮다고 했다. 소녀가 다시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할 수 없이 뒷걸음질을 쳤다. 그 바람에 소녀가 안고 있는 꽃묶음이 우그러들었다. 그러나 소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비에 젖은 소년의 몸내음새가 확 코에 끼얹혀졌다. 그러나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도리어 소년의 몸 기운으로 해서 떨리던 몸이 적이 누그러지는 느낌이었다.⁵⁵⁾

소년은 소녀에게 자신의 외투인 겹저고리를 벗어서 소녀를 보호하고자 한다. 그리고 소녀는 이를 잘 받아들인다. 소녀는 소년의 진실하고 희생적인 사랑을 알고서는 하나씩 하나씩 꽃을 버리기 시작한다. 그런데 그들은 더욱 좁은 장소인 수숫단 속으로 이동을 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곳은 더욱 좁기 때문에 거짓을 다 버려야만 하는 곳이요, 그래서 진실성이 살아나는 곳이다. 이곳에서 소년은 더욱 희생적으로 비를 맞게 된다. 그는 자기가 비를 맞으면서라도 소녀를 귀하게 여기고 보호하고자 하는 진심을 표현한다. 소녀는 이런 소년의 사랑 속에서 자신의 걸치레인 꽃이 더 이상 필요없음을 느낀다. 그리고 소년의 이런 진실한 사랑을 택함으로 비록 비에 젖은 몸내음새이지만 그 이면의 사랑을 느끼고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 도리어 몸기운을 통해서 진실된 사랑 앞에 감동이 되어 장차 죽음을 가져오게 될 몸의 떨림조차도 다소 누그러지고 가라앉게 된다. 여기서 꽃을 버리고 고개를 돌리지 않은 것은 모태회귀의 이미지이다. 여기서 소녀는 소년에게 이성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존재로 주어진다. 소녀는 꽃을 버린다는가 고개를 돌리지 않는 행위를 보여줌으로써 시련을 통해 깨달은 사랑을 소년에게 전달하고 있다.

도량이 있는 곳까지 와 보니, 엄청나게 물이 불어 있었다. 빗마저 제법 붉은 흙탕물이었다. 뛰어 건널 수가 없었다. 소년이 등을 돌려댔다. 소녀가 순순히 업혔다. 건

55) 전계서, p.277.

어울린 소년의 잠방이까지 물이 올라 왔다. 소녀는, 어머니 하는 소리를 지르며 소년의 목을 끌어안았다.⁵⁶⁾

도랑의 붉은 흙탕물은 앞의 인용에서 살펴 본 소년과 소녀의 첫 만남에서의 도랑물과 비교할 때, 이들 소년, 소녀의 의식(儀式)의 연속으로 볼 수 있다. 바솔라르에 의하면 '흐린 물'과 '엷은 과문'의 두 이미지의 경우, 그들의 구조는 단순히 순수성-불순성, 투명성-불투명성 사이의, 즉 감각적 성질상의 역학 관계일 뿐만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가벼움-무거움, 상승-하강 사이의, 즉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는 대상 전체로써 이루어지는 그것이라는 사실이다.⁵⁷⁾ 투명한 개울물의 의미와 소나기를 맞고 난 후의 도랑물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 투명한 개울물에서는 삶의 걱정 없는 행복한 모습을, 그리고 흐린 흙탕물에서는 무지개빛 화려함이 아닌 시련의 삶을 말한다. 이 물은 그만큼 시련이 가혹했음을 나타내어 주고 있고, 또한 소년이 이 흙탕물은 건넜다는 것은 그가 통과제의적인 죽음의 시련을 잘 견디어 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써 소년은 통과제의의 두 번째 단계인 과도의례를 마치게 된다.

(3) 통합의례

이제 소년은 성년식 통과제의의 마지막 단계인 통합의례를 경험하게 된다. 통합의례는 험난한 과도의례의 상황으로부터 탈출하여 행복한 일탈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주인공은 현실의 세계로 돌아오는데, 과거의 존재와는 다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소년은 현실의 세계로 돌아오지만, 그 현실의 세계는 사랑하는 사람이 치명적인 병에 걸리는 곳이고, 원하지 않는 헤어짐이 존재하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죽음이 있는 곳이다. 소년은 이러한 현실사회에서 과도의례를 통해서 전수 받은 지식을 가지고 현실과 타협하게 되고, 이런 타협을 통해서 소년은 이성의 사랑에 대하여 점점 눈을 뜨게 된다.

소나기로 말미암아 소녀는 병에 걸려서 보이지 않자 소년은 운동장을 살피고 남몰래 5학년 여자반을 엿보기도 한다. 여기서 소년은 이런 현실과의 타협과 적응을

56) 전계서, pp.277-278.

57) 광광수, 김현, 「바솔라르 연구」 (서울 : 민음사, 1978), p.94.

통해서 내면 세계에 소녀에 대한 기다림과 그리움을 키워 나간다. 이로 인해 소년은 소녀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조금씩 깨닫게 된다. 그리고 소녀는 결정적으로 자신의 스웨터 앞자락에 묻은 검붉은 진흙물의 흔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두 사람 사이의 확고한 사랑의 표적으로 인식한다. 소년과 소녀는 이 흔적을 인정한다. 이는 서로에게 대한 사랑의 고백과도 같은 것이다. 결국 진흙물은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는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로 말미암아 이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견고해진다.

그러나 이윽고 소년은 소녀가 이사간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게 된다.

소녀와 헤어져 돌아오는 길에, 소년은 혼잣속으로 소녀가 이사를 간다는 말을 수 없이 되뇌어 보았다. 무어 그리 안타까울 것도 서러울 것도 없었다. 그렇건만 소년은 지금 자기가 씹고 있는 대추알의 단맛을 모르고 있었다.⁵⁸⁾

소년은 소녀가 이사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너무도 힘들어한다. 이것은 그만큼 소녀에 대한 그의 사랑이 깊어졌음을 의미한다. 헤어져야 한다는 충격 앞에 소년의 내면에서는 안타까움과 서러움이 잔잔히 파도치고 있다.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이 씹고 있는 대추의 단맛조차도 깨닫지 못한다. 소년은 헤어짐이라는 현실에 대한 내적 적응을 통해 뼈아픈 갈등을 체험하게 되고, 이러한 시련의 힘이 그를 성장하게 한다. 또한 이 헤어짐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소녀에 대한 사랑을 내면의 비밀로 간직하고자 하는 소년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성숙한 모습과 만나게 된다.

돌아오는 길에는 열 이틀 달이 지우는 그늘만 골라 짚었다. 그들의 고마움을 처음 느꼈다.

불룩한 주머니를 어루만졌다. 호두송이를 맨손으로 왔다가는 움이 오르기 쉽다는 말 같은 건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저 근동에서 제일가는 이 덕쇠 할아버지네 호두를 어서 소녀에게 맛보여야 한다는 생각만이 앞섰다.(중략)

소년이 이번에는 어머니한테, 아버지가 어디 가시느냐고 물어보았다.

“저, 서당골 윤초시택에 가신다. 제사상에라도 놓으시라구…….”

“그럼 큰놈으로 하나 가져가지. 저 얼룩수탉으루…….”

이 말에 아버지는 허허 웃고 나서,

“임마, 그래두 이게 실속이 있다.”

58) 황순원, 전계서, p.279.

소년은 공연히 열 적어, 책보를 집어던지고는 외양간으로 가, 소잔등을 한번 철썩
갈겼다. 소파리라도 잡는 체.⁵⁹⁾

소년이 열 이틀 달이 주는 그늘에 고마움을 왜 느끼는지, 그리고 왜 큰놈으로
가져가기를 바라는지, 왜 소잔등을 갈기며 쇠파리라도 잡는 척 하는지는 소년만이
아는 사실이다. 즉, 소년이 소녀에 대한 사랑을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내면의 비밀로 간직하고자 하는 욕망의 표현이다. 그런데 이렇게 헤어짐을 준비하는
소년의 심정에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은 소녀의 죽음이다.

“그런데 참 이번 계집애는 어린것이 여간 잔망스럽지가 않아. 글썽 죽기 전에 이
런 말을 했는지 않아? 자기가 죽거든 자기 입든 옷을 꼭 그대루 입혀서 물어달라
구…….”⁶⁰⁾

소년은 영원한 헤어짐이라는 죽음의 충격을 받는다. 여기서 죽음의 충격 효과와
소년의 심리는 알 길이 없지만, 앞의 헤어짐으로 인한 충격과 정서적인 손상에서 유
추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소녀는 자신이 입던 옷을 함께 물어달라는 유언을 남김으
로써 소년에게 영원한 사랑을 간직하고자 하는 심리를 읽어낼 수 있다. 소년은
헤어짐보다 더한 죽음이라는 현실과 맞서면서 죽음을 초월하는 사랑의 의미를 깨달
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고대인들이 통과제의를 통해서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을 정
복할 지식이나 힘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다.

결국 황순원은 이 소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생의 의식들을 거치면서 ‘절대적
인 인간가치를 영원히 구원해서 확대하려는 인간의식’⁶¹⁾을 독자들에게 의미 있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소년은 현실적인 삶에 적응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체
험하게 된 외상적인 아픔과 정서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 따라서 소년은 통과제의의
시련과정을 통해서 전수 받은 이성의 사랑으로서 이를 극복하고자 필사적으로 애쓰
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이 소설은 모르데카이 마르쿠스의 통과제의 유형론에 따르면 미완적

59) 전개서, pp.279-280.

60) 상계서, p.281.

61) 이태동, 전개서, p. 9.

통과제의에 속한다. 이는 사랑하는 소녀의 죽음이라는 충격적인 경험과 소녀의 유언을 통해서 소년의 내면에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의 성숙 가능성을 느끼게 해준다. 또한 소녀의 죽음으로 인한 상처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소년의 필사적인 상황을 통해서도 그의 성숙 가능성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이제 지금까지의 분석내용을 토대로 「소나기」의 통과제의적 발전과정을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소나기」에 나타난 사랑의 통과제의의 과정

분리의례	→ 과도의례	→ 통합의례
① 소녀로 인해 물가(정화장소)를 맴돌. ② 소년이 직접 물을 움키는 행위를 통해서 정화가 이루어짐. ③ 소녀로 인해 쫓겨 도망가다가 코피가 남을 통해 순진무구의 어린이 세계에서 격리되어짐.	① 진입의식 : 독수리의 상징, 송아지 타기를 통해서 꽃뭉음으로 보이는 소녀의 인식 ② 피안으로의 여행 : 소나기를 만남, 이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원두막과 수숫단으로 피해 다니며 소녀를 보호함. ③ 소녀의 꽃을 버리고 가식 없는 순수한 사랑과 몸냄새를 피하지 않는 행위를 통해 소년에게 이성의 사랑이 전달됨.	① 소년이 현실세계로 나옴. ② 소녀의 병으로 인해 기다림. ③ 소녀의 이사를 통해서 소년은 대추 맛을 모를 정도로 갈등. ④ 이런 현실을 수용하고자 소녀와의 사랑을 비밀로 남기고자 노력함. ⑤ 아버지를 통해서 들은 소녀의 죽음 앞에서 소년은 충격 가운데 던져짐. ⑥ 소년은 과도의례를 거치면서 전수 받은 이성의 사랑을 성숙시켜 나가고자 내적 투쟁함. ⑦ 그러나 결정적으로 죽음이라는 근원적인 현실 앞에서 충격을 받음.
소년이 성에 눈뜨고 사랑을 경험함.		사랑의 성숙, 죽음 앞에서 사랑의 의미를 발견코자 몸부림치는 상태에 있음. (미완성 통과제의)

3. 결정적 통과제의 : 「학」

이 작품에서는 보통의 성인 입문과는 다르게 주인공이 소년과 소녀가 아닌 성삼이와 덕재라는 청년이 등장한다. 이 작품을 통과제의 소설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성인 혹은 초자연 세계로 '화해'하게끔 한다는 관점에서 일종의 입사식 이야기라는 데 있다. 「학」의 통과제의적인 측면은 구체적으로 '전쟁으로부터 치명적인 외상(外傷)(정신분석학적인 측면에서의 외상)을 받는 인물들이 부조되어 있다'⁶²⁾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6. 25가 한국인에게 남기고 간 의미,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상처를 비교적 입체적인 각도에서 풀이해 보고자 한 것으로 평가'⁶³⁾할 수 있다. 결국 이 작품은 성장과정에서 큰 상처를 입고 있으나 입사를 치르지 못해 성숙과 성장을 하지 못한 인물이 제시된다.

엘리아데는 정신분석이 어떻게 통과제의와 연결이 될 수 있는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정신분석처럼 특별히 근대적인 기술도 역시 입사식의 패턴을 보존하고 있다. 환자는 깊이 그 자신에게로 침잠하고 자기의 과거의 삶을 되살리고, 자기의 외상적(外傷的) 경험을 또 다시 직면하도록 요구받는다. 형식면에서 보면 이 위험한 조작은 지옥에로, 마귀의 영역에로의 입사적 하강 및 괴물들과의 투쟁을 닮고 있다. 입사자가 그의 시련에서 승리를 거두고 다시 올라오리라고 기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정신분석을 받는 환자는 정신적 건강과 통일성을, 그리고 따라서 문화적 가치의 세계들을 발견하기 위하여, 유령과 괴물들에게 쫓기는 자기 자신과의 '무의식'과 대면하지 않으면 아니된다.⁶⁴⁾

결국 필자는 이 작품을 정신분석적인 치료의 입장에서 통과제의를 적용시켜서 비평하고자 한다. 정신분석의 치료에서처럼 주인공은 자신의 상처를 직면하게 된다. 그런데 이 시련을 잘 견디고 결국은 새로운 자신의 욕망을 상징적인 학을 통해서 발견하고 이 세계에서 나오게 된다. 그리고 학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은 주인공은 현실세계에서 포승줄을 끊어버림으로써 완전한 성숙과 각성을 보여 주고 있

62) 조남현, 전계서, p.357.

63) 상계서, p. 365.

64) 멀치아 엘리아데, 「성과 속 : 종교의 본질」, 이동우 역(서울 : 학민사, 1983), p.158.

다. 상처를 입고 있는 인물이 상처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궁극적으로 완전한 성인 세계에 입문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 분리의례

전쟁으로부터 치명적인 정신적 외상을 입은 주인공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성숙과 각성에 이르는 과정을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처음 배경 부분에서는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깨어진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삼팔 접경의 이 북쪽 마을은 드높이 개인 가을하늘 아래 한껏 고즈넉했다.

주인 없는 집 봉당엔 흰 박통만이 흰 박통을 의지하고 굴러 있었다.

어쩌다 만나는 늙은이는 담뱃대부터 뒤로 돌렸다.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멀찌감치서 미리 길을 비켰다. 모두 겁에 질린 얼굴들이었다. (중략)

흔들리지도 않은 밤나무가지에서 남은 밤송이가 저 혼자 아람이 떨어져 떨어져내렸다.⁶⁵⁾

여기서는 표면상으로 별로 파괴되지 않았지만 속으로 인심이 흉흉해진 분위기를 그리고 있다. 늙은이가 담뱃대를 뒤로 돌리는 경우 평화로운 시대, 질서 있는 사회는 아니다. 담뱃대는 노인의 권위를 상징하고 그 길이에 따라 연령의 고하를 재는 바로미터이기도 하다. 이처럼 귀중한 권위의 표시가 뒤로 감추어진다는 것은 노인의 권위가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단절과 붕괴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또 어린이는 체면이나 염치가 없어 상하분별이 미숙하고 길을 잘 비키지도 않는다. 그런데 그들까지도 무서워하는 사회분위기가 된 것이다. 이 모두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⁶⁶⁾ 밤나무에서 알밤이 저절로 떨어진다든 것도 건강치 못함과 결실치 못하는 인간의 불모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등장하는 주인공의 심리 상태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반영된 것을 통해 성삼이가 전쟁으로 인한 외상으로 내면의 질서가 파괴되고 인정이 메말라 버렸으며, 영혼의 불모성으로 고통받고 있는가를 살필 수 있다. 그가 일단은 전쟁이라는 사건을 이미

65) 황순원, 전계서, p.313.

66) 이병기, "소설감상의 실제," 「유한공전논문집 4」, 1989, p.47.

거쳐왔고 그로 인한 정신적 외상과 정서적인 상처를 경험한 자로 나오고 있다. 그는 이윽고 덕재와의 만남을 통해서 내면의 상처가 점점 환기되면서 학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내적인 성숙의 세계로 나아갈 조짐을 보여준다.

임시 치안대 사무소로 쓰고 있는 집 앞에 이르니, 웬 청년 하나가 포승에 뽕뽕 묶여 있다.

이 마을에서 처음 보다시피 하는 젊은이라, 가까이 가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깜짝 놀랐다. 바로 어려서 단팍동무였던 덕재가 아니냐.

천태에서 같이 온 치안대원에게 어찌된 일이라고 물었다. 농민동맹 부위원장을 지낸 농민데 지금 자기 집에 잠복해 있는 걸 붙들어 왔다는 것이다. (중략)

“이 자식은 내가 데리구 가지요.”

덕재는 한결같이 외면한 채 성삼이 쪽은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⁶⁷⁾

성삼이는 그와 어렸을 적에 단팍동무인 덕재와 조우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전쟁의 잔상으로 인해, 한 명은 치안대원이고 다른 한 명은 농민 동맹 부위원장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덧씌운 감투를 쓰고 있다. 이 둘은 이것을 극복해 내지 않는다면 그들은 끊임없이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진정한 성인 입문에 이르기까지 성숙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성삼이는 이 문제를 씨름하고자 하고 맞서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청하여 덕재를 데리고 가고자 한다. 여기서 덕재는 정신분석 차원에서 믿을 만한 입사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다. 왜냐하면 덕재는 성삼이와 과거를 함께 해 온 단팍동무이기 때문이다.

동일한 과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둘은 친화관계를 형성하고 있지만 이 둘은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를 경험한 인물들이다. 성삼이는 자유진영의 이데올로기를, 덕재는 공산진영의 이데올로기를 잠시 경험한 사람이다. 지금은 상황이 반전되어서 자유진영이 득세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회 분위기상 성삼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떳떳하게 할 수 있는 배경까지 제공되어 있는 실정이다. 즉 그는 상처를 경험한 그 시절을 제외하고는 상처를 받은 사건 이전이나 상처받은 사건 이후이나 그에게 있어서는 떳떳한 과거와 현재가 제시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입사자는 자신의 그 동안 과거의 삶의 세계로, 자신의 외상적인 경험의 세계로 떳떳하게

67) 황순원, 전제서, pp.313-314.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 정신분석에 있어서 입사자와 입사지도자의 친화관계가 이중의 구조를 통해서 제시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삼이는 덕재의 호송을 말하므로 입사를 하게 된다. 여기까지가 통과제의에서 말하는 준비단계인 분리의례이다.

(2) 과도의례

성삼이의 과도의례는 과거의 세계를 환기하면서 시작된다. 그는 처음부터 상처의 본질적인 면에 접근해 가고 있지 않다. 그의 기억에 떠오른 것은 평화로운 유년기의 시절이다. 소년들의 순진한 모험이 충만한 세계요, 또 이면에 애정과 사랑이 충만한 세계이다.

어려서 어른들 몰래 담 모퉁이에서 호박잎 담배를 나눠 피우던 생각이 났다.

(중략)

한번은 어려서 덕재와 같이 흑부리 할아버지네 밤을 훔치러 간 일이 있었다. 성삼이가 나무에 올라갈 차례였다. 별안간 흑부리 할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나무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엉덩이가 밤송이에 찢렸다. 그러나 그냥 달렸다. 흑부리 할아버지가 못 따라올 만큼 멀리 가서야 덕재에게 엉덩이를 돌려댔다. 밤가시 빼내는 게 더 따끔거리고 아팠다. 절로 눈물이 찢끔거렸다. 덕재가 불쑥 자기 밤을 한 줌 꺼내어 성삼이 호주머니에 넣어 주었다.....

성삼이는 새로 불을 땡겨 문 담배를 집어 내던졌다. 그리고는 이 덕재 자식을 데리고 가는 동안 다시 담배를 붙여 물지 않으리라 마음먹는다.⁶⁸⁾

성삼이는 덕재를 통해서 과거의 순진무구의 어린 시절의 상념 속에 빠져 들어간다. 그들은 어린 시절에 금지된 모험들을 공유한 친구 사이다. 호박잎 담배를 나눠 피우고 밤 서리를 갔었다. 또한 밤 서리 갔다가 성삼이는 예상치 못한 사건을 만나 밤을 따지 못하고 밤가시에 찢렸다. 성삼이에게 덕재는 그 고통받는 부분인 밤가시를 빼주었다. 또한 사건을 만나 밤을 얻지 못한 성삼이에게 덕재는 자신의 밤을 꺼내 준다. 이 기억은 성삼이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전조가 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이기도 하다. 성삼이는 어린 시절처럼 금지된 모험을 하고 싶은 충동

68) 전계서, p.314.

을 갖게 된다. 이 금지된 모험을 통해서 그들의 우정은 더욱 돈독해진 것이다. 성삼이는 덕재와의 지옥세계와 천상세계의 모험을 같이 하게 된다. 즉 정신적 외상의 세계를 경험하고 이 정신적 조건의 사슬에서의 해방을 경험하게 된다. 과거처럼 어떤 사건을 만날지라도 덕재가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가시를 빼주고 성삼이가 원하는 밤을 얻도록 인도할 것이 내포되어 있다.

성삼이는 와락 저도 모를 화가 치밀어 고향을 질렀다.

“이 자식아, 그 동안 사람을 몇이나 죽였나?” (중략)

그리고는, 성삼이를 쏘아본다. 그 눈에 점점 빛을 더해가며, 제법 수염발 잡힌 입 언저리가 실룩거리더니,

“그래, 너는 사람을 그렇게 죽여 봤니?”

이 자식이! 그러면서도 성삼이의 가슴 한복판이 환해짐을 느낀다. 막혔던 무엇이 풀려 내리는 것만 같은 것이다.⁶⁹⁾

이제 본격적으로 성삼이의 상처받은 내면세계가 펼쳐지고 있다. 성삼이는 비록 자신은 사람을 죽여 본 경험이 없었지만 그는 이데올로기라는 이름 하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아왔다. 그는 이데올로기의 진위를 떠나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에 대해 분노를 삭혀왔다. 인간에게 가장 큰 절망감과 공포인 죽음을 무기 혹은 처벌로 하여 이데올로기를 부려온 그 누군가에게 저항과 항의를 하고 있다. 성삼이가 와락 저도 모를 화를 내고 고향을 지르는 것은 그도 역시 원치 않게 상처를 받았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자신의 절친한 친구에게까지 오해를 하게 된다. 그러나 그는 덕재의 대답을 듣고서 가슴을 고통스럽게 하였던 오해가 풀렸고, 이로 인해 가슴의 한복판이 환해짐을 느낀다. 막혔던 무엇이 풀려 내리는 것만 같은 것을 느낀다. 이는 그만큼 이데올로기로 인한 인간의 죽음에 대해 성삼이가 그 동안 상처를 받고 해소되지 못한 독처럼 마음속에 박혀 있었던 것이 풀리게 되는 것이다.

“농민동맹 부위원장쯤 지낸 놈이 왜 피하지 않구 있었어? 필시 무슨 사명을 띠구 잠복해 있는 거지?” (중략)

그냥 덕재는 잠잠히 건기만 한다. 역시 이 자식 속이 풀리는 모양이구나. 이런 때 한번 낫짝을 봤으면 좋겠는데 외면한 채 다시는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

69) 전계서, pp.314-315.

성삼이는 허리에 찬 권총을 잡으며,
 “변명은 소용없다. 영락없이 넌 총살감이니까. 그저 여기서 바른 대루 말이나 해 봐라.”
 덕재는 그냥 외면한 채,
 “변명은 하려구도 않는다. 내가 제일 빈농의 자식인데다가 근농군이라구 해서 농민동맹 부위원장이 됐던 게 죽을 죄라면 하는 수 없는 거구, 나는 예나 이제나 땅파 먹는 재주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잠시 사이를 두어,
 “지금 집에 아버지가 앓아 누웠다. 벌써 한 반 년 된다.”⁷⁰⁾

여기서도 성삼이는 이데올로기로 인해 상처받은 모습을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그는 이데올로기적인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즉, 흑백 논리적인 사고로 경직되어 있다. 어떤 이유나 원인을 들어보기를 원치 않고 무조건 자신이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논리로 인간의 사고와 심성을 말살시키고 무차별적으로 죽이고자 하는 정신적 조건의 사슬에 강하게 매여 있다.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인 덕재에게서조차도 그는 또 논리를 적용시키고 꼭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덕재가 피하지 않은 이유를 무슨 사명을 띠고 잠복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변명도 필요 없고 총살감으로 밖에 보지 못한다. 그러나 성삼이는 덕재의 대답을 통해서 진실을 듣게 되며 이데올로기적인 사고 구조가 얼마나 사람을 오해하고 잘못 판단하게 만드는가를 발견하게 된다. 덕재의 진실은 자신은 단지 빈농의 자식이요 근농군일 뿐, 전혀 이데올로기적인 사고 구조에 매여 있지 않은 인물이다. 그는 농민동맹 부위원장이 먼지가 아니라 빈농이요 근농군이라는 것이다. 덕재는 성삼이와 똑같은 전쟁의 경험을 치르면서 농민동맹 부위원장의 감투를 썼었던 만 예나 지금이나 땅파먹는 재주밖에 없음을 통해 현재적으로도 그런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여기서 성삼이는 덕재의 진실을 더 잘 드러내는 강한 인간 중심적인 사고 구조에 영향을 받고 갑자기 이데올로기적인 사고 밖으로 나와서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감지하게 된다.

“장가 안 들었나?”
 잠시 후에,

70) 전계서, p.315.

“들었다.”

“누구와?”

“꼬맹이와”

아니, 꼬맹이와? 거 재미있다. 하늘 높은 줄은 모르고 땅 넓은 줄만 알아, 키는 작고 뚱뚱하기만 한 꼬맹이. 무던히 새침데기였다. 그것이 알미워서 덕재와 자기가 번번히 놀려서 울려주곤 했다. 그 꼬맹이한테 덕재가 장가를 들었다는 것이다.

“그래, 애가 몇이나 되나?”

“이 가을에 첫애를 낳는대나.”

성삼이는 그만 저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웃음을 겨우 참았다. 제 입으로 애가 몇이나 되느냐고 묻고서도, 이 가을에 첫애를 낳게 됐다는 말을 듣고는 우스워 못 견디겠다는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작은 몸에 큰 배를 한 아름 안고 있을 꼬맹이.⁷¹⁾

성삼이는 덕재의 인간중심의 사고에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성삼이는 덕재의 사고를 통해서 이데올로기적인 사고를 내려놓게 된다. 그는 인간적인 삶에 기초한 질문을 하게 된다. 즉 결혼에 대해서, 애는 몇이나 되는가 따위를 묻게 된다. 그리고 성삼이는 조금씩 이데올로기의 논리구조에 의해 인간을 몰아세우고 처형을 내리는 독단적인 생각에서 나오게 된 것이다.

“하여튼 네가 피하지 않구 남아 있는 건 수상하지 않아?”

“나두 피하려구 했었어. 이번에 이남서 쳐들어오믄 사내란 사넨 모조리 잡아 죽인 다구 열 일곱에서 마흔 살까지의 남자는 강제루 북으로 이동하게 됐었어. 할 수 없이나두 아버질 업구라두 피난 갈까 했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안된다는 거야. 농사꾼이다 지어 놓은 농살 내버려두구 어딜 간단 말이나구. 그래 나만 민구 농사일루 늙은신 아버지의 마지막 눈이나마 내 손으로 감겨 드려야겠구, 사실 우리같이 땅이나 파먹는 것이 피난 간됐자 별 수 있는 것두 아니구…….”

지난 유월달에는 성삼이 편에서 피난을 갔었다. 밤에 몰래 아버지더러 피난갈 이야기를 했다. 그 때 성삼이 아버지도 같은 말을 했다. 농사꾼이 농사일을 늘어놓구 어디루 피난 간단 말이나. 성삼이 혼자서 피난을 갔다. (중략)

고갯마루를 넘었다. 어느 새 이번에는 성삼이 편에서 외면을 하고 걷고 있었다. 가을 햇별이 자꾸 이마에 따라왔다.⁷²⁾

71) 전계서, pp.315-316.

72) 상계서, pp.316-317.

덕재는 죽음보다도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다. 그는 아버지를 돌보아야 하고 자신은 근본적으로 농사꾼임을 알고 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자기인식이었다. 성삼이는 이 사실 앞에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지금까지 이런 인식이 부족했음을 그리고, 맹목적으로 이데올로기를 맹신하고 쫓아 다녔음을 발견한다. 그는 이데올로기와 그로 인한 죽음으로 두려워 피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이 오히려 이데올로기로 인해 구속되어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이제는 위치가 전도되어 성삼이 편에서 외면을 하고 걷고 있다. 성삼이는 이 구속과 상처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여기에서 성삼이는 통과제의를 거치지 않은 인물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성삼이는 죽음의 통과제의를 거치지 못했다. 단지 그 공포로 인해서 살짝 도피를 해버렸다. 그러나 덕재는 이에 반해 죽음을 대면하고자 하는 인물이다. 죽음의 제의를 치르려고 한다. 성삼이는 죽음의 제의 앞에서 덕재처럼 분명한 자기 발견이 없기 때문에 그는 이데올로기의 감투를 핑계 삼아서 도피하였던 것을 깨닫게 된다. 이는 성삼이가 결정적으로 자기 인식이 결여로 말미암아 초래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는 통과제의적 입장에서 본다면 모태회귀의 이미지인 존재의 무(無)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혼돈의 세계요, 애매한 상태인 과도의례의 혼절 전의 상태이다. 성삼이는 덕재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자신의 무정체성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게 된다. 통과제의의 과도의례인 피안으로의 세계를 체험한 것이다. 이제 성삼이는 학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 본모습을 보게 된다.

고개를 다 내려온 곳에서 성삼이는 주춤 발걸음을 멈추었다.

저쪽 별 한가운데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고 섰는 것 같은 것은 틀림 없는 학 떼였다. 소위 삼팔선 완충지대가 되었던 이곳.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은 그 동안에도 이들 학들만은 전대로 살고 있는 것이었다. (중략)

어른들 몰래 들어서 올가미를 놓아 여기 학 한 마리를 잡은 일이 있었다. (중략) 서울서 누가 학을 쏘러 왔다는 것이다. (중략) 그 길로 둘이는 별로 내달렸다. 이제는 어른들한테 들켜 꾸지람 듣는 것 같은 것은 문제가 아니었다. 그저 자기네의 학이 죽어서는 안된다는 생각뿐이었다. 숨들릴 겨를도 없이 잡풀 새를 기어 학 발목의 올가미를 풀고 날개의 새끼를 끌었다. (중략) 단정학 한 마리가 날개를 펴자 땅에 내려앉았던 학도 긴 목을 뽑아 한 번 울음을 울더니 그대로 공중에 날아올라 두 소년의 머리

위에 동그라미를 그리며 저쪽 멀리로 날아가 버리는 것이었다. 두 소년은 언제까지나 자기네 학이 사라진 푸른 하늘에서 눈을 땔 줄을 몰랐다.⁷³⁾

주인공 성삼이는 전쟁으로 인해 정신적인 외상과 정서적인 손상을 받은 인물이었는데 덕재를 만나고 난 후 점차 자신을 잃어매어 온 그 실체를 발견하게 된다. 이 데올로기에 구속되어있고 상처받은 자신을 발견한다.

성삼이는 결정적으로 학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의 본자아를 발견하게 된다. 학은 성삼이의 자아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다. 존재의 무를 경험한 성삼이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데, 여기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학이다. 학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 그 자리에 있다. 이는 한민족의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하얀 색을 통해서 무엇인가에도 물들지 않는 것을, 이는 더 나아가 정신적 구속의 해방을 상징한다. 학을 통해서 성삼이는 인간은 그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간에 도피하지 않고 구속되지 않은 인간상을 발견한다. 그리고 이 학의 모습은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다. 특히 과거의 묶였던 학을 통해서 그 학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였다. 비록 걸어로 구속되었을 지라도 자신과 덕재가 그 학을 풀어주었을 때 그 학은 유유히 날 수 있었던 것처럼 자신도 일시적으로 구속되어 있을지언정 그 풀려난 학처럼 구속에서 벗어나 날 수 있음을 깨닫는다. 여기의 학을 통한 이미지는 통과제의의 과도의례 과정 중 지옥으로의 하강을 거쳐 천상으로의 상승을 보여주는 모티프라고 할 수 있겠다. 이로써 주인공은 완전하게 통과제의의 과도의례를 체험한 것이다.

(3) 통합의례

성삼이의 통합의례는 어린 시절의 과거 추억에서 현실로 전환되면서 시작된다. 분리, 과도의례를 통과한 수련자로서의 성삼이는 자신을 구속하던 이념의 구속과 현실적인 증오심이 민족의 비극이 낳은 순간적이고 가변적인 것이나, 우정이란 영원하고 불변하는 것임을 확연히 인식하고 덕재를 풀어주게 된다. 수련자로서 성삼이는 이전의 상태, 즉 이념에 의한 현실적 증오심을 가진 치안대원으로서의 위치에서 일단 죽고 우정의 소중

73) 전계서, p.317.

함을 깨달은 새로운 존재로 거듭 태어나고 있다.

“애, 우리 학 사냥이나 한번 하구 가자.”

성삼이가 불쑥 이런 말을 했다.

덕재는 무슨 영문이지 몰라 어리둥절해 있는데,

“내 이걸루 울가밀 만들어 놀께, 너 학을 몰아오너라.”

포승줄을 풀어 쥐더니, 어느 새 성삼이는 잡풀 새로 기는 걸음을 쳤다. (중략)

“어이 왜 멍추같이 게 섰는 게야? 어서 학이나 몰아오너라”

그제서야 덕재도 무엇을 깨달은 듯 잡풀 새를 기기 시작했다.

꽤마침 단정학 두세 마리가 뉘푸른 가을하늘에 큰 날개를 펴고 유유히 날고 있었다.⁷⁴⁾

성삼이는 과거의 어렸을 적에 학을 잡았다 풀어준 추억을 통해서 거듭남의 모티프를 체험한 것이다. 자신이 바로 풀려난 학과 같은 존재임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그래서 이데올로기의 상징인 포승줄을 학을 잡는 울가미로 보게 된다. 이는 그의 내면세계의 변화로 인해 사물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실세계에서 총살감인 덕재를 풀어 줌으로써 완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힘과 지혜를 가진 인물로 변화되고 있다. 덕재를 묶고 있던 포승줄을 풀어 버리는 행위와 가을하늘을 나는 학의 모습을 통해 통과제의를 거친 성삼이가 현실사회에서 결정적인 진로가 정해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성삼이가 입사하기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론적인 변화를 통해 완전한 성인입문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결국 이 소설은 주인공이 통과제의의 통합 의례를 통해 완전한 성숙과 각성에 다다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결정적 통과제의 소설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학」의 통과제의적 과정을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74) 전계서, pp.317-318.

「학」에 나타난 통과제의의 전개 과정

분리의례	→ 과도의례	→ 통합의례
<p>① 주인공 성삼이의 내면 세계가 작품의 배경을 통하여 투영되어 나타난다. 내면 질서가 파괴되고 영혼의 불모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p> <p>② 단적인 덕재를 만나게 된다. 입사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덕재를 통해 성삼이는 외상적 경험의 세계로 멋멋하게 나아가게 된다. 즉, 성삼이는 덕재의 호송을 통해 입사하게 된다.</p>	<p>① 성삼이의 상처받은 내면 세계가 덕재와의 대화를 통해서 반영되어 나타난다. 먼저 사람을 벗어나 죽여봤니? 라는 질문을 통해서, 덕재가 남아 있는 것은 필시 무슨 사명을 띠고 잠복했을 것이라는 이데올로기적인 사고를 통해서 전쟁이라는 사건으로 인해 죽음. 앞에서의 성삼이의 모습이 제시되고 있다. 결국 죽음이라는 시련을 덕재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받아들여려고 하나 성삼이는 이런 정체성이 없으므로 도피할 수밖에 없음이 나타난다.</p> <p>② 학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존재의 무에서 올라오게 된다.</p>	<p>① 성삼이는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고는 포승줄을 올라미로 보고 있다.</p> <p>② 현실사회에서 친구인 덕재를 풀어줌으로써 완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현실을 대처해 나가는 인물로 변화된다.</p>
	<p>덕재를 통해 이데올로기적인 상처를 대면함으로써 난폭해지고, 학을 통해서 어떤 확신을 찾으려 애쓰는 모습이 나온다.</p>	<p>주인공이 포승줄을 풀어 버림으로써 현실사회에서 결정적인 진로가 정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p> <p>(결정적 통과제의)</p>

IV. 황순원 소설에 나타난 통과제의적 특성

황순원의 단편소설 「별」과 「소나기」, 「학」을 통과제의의 발전단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다소간의 전개 양상에 차이는 있으나 성인식이라는 일련의 통과의례를 거치고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 이 분석 내용을 작품별로 간략히 정리한 후 통과제의적 특성을 비교하면서 고찰하고자 한다.

작품 「별」에서는 모성에 집착해 있는 어린 주인공에게 과수노파의 말과, 의붓 어머니와 아버지의 말로 대변되는 사회의 도덕적인 규범과 가치와, 더 나아가 죽음이라는 일련의 사건들이 모성의 세계를 깨뜨리는 데서 통과제의가 일어난다. 소년은 이를 통해서 점차 모성의 세계, 어린이의 세계에서 빠져 나오기 시작한다. 이것은 그러나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나타나는 소년의 반응은 다양하다. 처음에는 현실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못해 반발과 거부를 일삼으나 점차 소년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통과제의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을 경험하기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소년은 누이의 죽음 앞에서 각시인형을 파봄으로써 죽음을 인식하고 죽음에 대해서 분노를 느낀다.

그러나 소년은 누이의 죽음에 대해서 죽음의 해석을 거부함으로써 이 소설은 성숙과 각성에 문턱까지는 이끌려 가나 결정적으로 죽음이라는 문지방을 나뉠대로의 인식을 가지고 넘지를 못하고 있다. 이 작품은 단지 죽음으로 인한 경험의 충격성이라는 효과만을 남기고 있으므로 시험적 통과제의의 유형이다.

「소나기」는 주인공 소년이 어떻게 일련의 상징적인 의식을 통해서 이성적 사랑에 눈뜨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준다. 소년은 아직 성적 인식의 통과제의를 거치지 않는 인물이다. 소년은 소녀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물가를 맴돌게 된다. 이로 인해 물의 이미지가 부각되는데, 이는 성(性)에 무지한 소년이 깨달음의 세계에 성인 입문하기 위해 자신을 정화시키는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마침내 소년은 이런 이성적 사랑에 대한 무지의 상태에서부터 빠져나와 소녀에게로 접근해간다. 이러한 접근 행동은 자신의 무지와 어린이 세계와의 결별, 혹은 격리를 뜻한다. 여기까지는 분리의례에 해당된다.

소년 소녀가 징검다리를 건너고 산으로의 여행을 가는 것은 본격적으로 과도의

례에 들어섰음을 나타낸다. 과도의례 상태에서는 진입의식과 피안으로의 여행 과정이 있다. 진입의식에서는 혼절 상태, 무의식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소년은 반쯤 무의식적인 어지러움 상태에서 점차 성(性)을 인식해 나간다. 하늘을 나르는 독수리라든가 송아지 위에서의 꽃으로 보이는 소녀를 인식하게 된다. 이 과정을 거친 후 또한 소년은 본격적으로 피안으로의 여행을 떠난다. 즉, 소나기로 인한 시련과 또한 오두막집으로 대변되는 모태회귀를 경험하게 된다. 소나기는 통과제의적 죽음의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소녀는 이 시련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기 때문이다. 소년은 소나기를 피하는 과정들을 통해 시련을 잘 견디어 낸다. 그리고 소년은 모태회귀를 나타내는 오두막집으로 나아가게 되며 결국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고, 이전의 이성적 사랑에 무지하였던 어린이의 세계는 죽고 이제 이성적 사랑을 깨닫게 하는 장소로 나아간 것이다. 비로소 소녀의 진실된 사랑의 씨앗을 받게 된다. 이 과정을 거친 후 물을 다시 건너는데, 이는 이전의 물이 아니라 흙탕물이다. 이는 소년이 완전한 통과제의의 과정을 이수하고 체험하였음을 나타낸다. 여기까지가 통과제의의 분리의례로서 진입의식과 피안으로의 여행을 마친 것이다.

그러나 소년은 현실세계로 돌아오게 된다. 현실세계는 소녀의 병, 이사, 죽음으로 대변되는 세계이다. 그러나 소년은 자신의 내면에서 이루어진 사랑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심리와 행동의 변화를 조금씩 보인다. 결국 소년은 죽음 앞에서 어떤 확신을 찾으려고 필사적으로 애쓰는 상태에 놓여 있게 된다. 이런 점에서 이 소설은 미완적 통과제의에 속한다.

「학」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처음 부분은 입사하기 전의 인물의 모습이 나온다. 상처받은 성삼이의 내면세계가 작품의 배경묘사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두 번째 부분은 덕재를 호송하는 일을 자청함으로써 입사의식을 치르게 된다. 여기서 성삼이의 침잠된 과거의 삶을 환기하고 외상적 경험에 또다시 직면하도록 요구하는 인물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덕재이다. 덕재가 입사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덕재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데올로기의 공포 가운데 있는 성삼이의 내면세계가 나온다. 이는 통과제의에서 말하는 과도의례로써 지옥에로의, 혼돈에로의 입사적 하강과 괴물들과의 투쟁을 나타낸다. 네 번째 부분에서는 학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성삼이는 자신이 학과 같은 자임을 발견한다. 이 모티프는 통과제의에서 나오는 천상에로의 여행에 포함될 수 있다. 즉 성삼이는

학을 통해서 통과제의의 과도의례를 완전히 체험하고 괴물로부터 험난한 탈출을 하고 행복한 일탈을 하게 된다. 그리고 현실세계를 상징하는 포승줄 앞에서 이제는 포승줄을 끊어 버림으로써 완전한 깨달음과 성숙을 현사회에서 보여주고 있다. 입사하기 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론적인 변화를 거친 모습으로써 이는 완전한 성인 입문의 경지에 다다랐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소설은 결정적인 통과제의 유형에 속한다.

이상의 요약을 바탕으로 세 작품의 통과제의적 특성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설의 전개과정이 통과제의의 과정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것은 작가가 인간의 삶을 제의적 과정으로 인식한 결과로 보인다. 「별」은 분리의례, 과도의례를 거쳐 통합의례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반면, 「소나기」와 「학」은 분리->과도->통합의례의 단계를 모두 거치면서 성인입문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별」은 주인공 소년이 어머니와 죽은 누이를 상징하는 별 중에 누이의 별을 거부하는 것을 통해 재탄생에 이르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과수노파의 입사 역할에도 불구하고 소년이 지니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절대적인 그리움과 이로 인한 생겨난 강한 미의식이 누이를 거부하게끔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소년은 누이의 죽음을 통해 누이의 사랑을 새삼 깨닫게 되고 땅에 과문은 인형을 다시 찾을 뿐만 아니라 당나귀 위에서 우리 누이를 누가 죽였냐고 울부짖음으로써 성숙과 각성의 문턱에 이르지만, 누이는 어머니와 같은 별이 되어선 안된다는 생각에 누이의 죽음을 부정함으로써 다시 태어난 존재로서의 위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별」은 시험적이다.

이에 비해 「소나기」와 「학」은 통과제의의 과정 중 통합의례의 단계에 이르는 점에서는 공통적이거나 그 양상은 다소 차이가 있다. 「소나기」는 소년이 소녀의 죽음 앞에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몸부림치는 결말을 통해 성년에 이르는 성숙의 아픔을 보여준 데 비해, 「학」은 성삼이가 덕재와의 만남을 통해 입사하게 되고, 학을 통해 자아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덕재의 포승줄을 풀어주는 행위를 통해 현실을 대처해 나가는 인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전자는 미완적이며, 후자는 결정적 통과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둘째 이 세 편의 소설은 성인사회에 입문하지 않은 순수하고 순박한 성장기의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그들이 체험하는 통과제의의 충격 효과를 성장을 위

한 필연적인 삶의 의미로 수렴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이 성장을 위한 통과제의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충격과 심리적 고통 등을 통해 성숙의 과정에 이른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고 할 수 있다.

「별」의 주인공은 아홉 살 난 소년으로 성장 과정에 있어서 어머니의 죽음에 이은 누이의 죽음이라는 충격적인 경험에 직면하지만 통과제의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아홉 살 적에는 일찍 죽은 어머니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과 그리움 때문에 모성의 세계, 어린이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나 과수노파의 말을 들음으로써 누이에 대한 애증을 갖게 되며 열네 살에 이르러 세속적 세계를 경험하면서 현실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경험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누이의 별을 거부함으로써 통과제의의 의미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결국, 어렸을 때 여윈 어머니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찾으려는 강한 집념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통과제의의 마지막 단계를 넘지 못하는 것이다.

「소나기」의 주인공 소년은 성숙한 세계로 입문하는 과정에 통과제의적 시련과 죽음을 경험함으로써 어느 정도 통과제의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소녀의 죽음은 소년에게 고통을 남기면서 성년에 이르는 성숙의 어려움을 깨닫게 함과 동시에 사랑하는 소녀의 죽음이라는 충격적인 경험과 소녀의 유언을 통해 소년의 내면에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의 성숙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죽음의 통과제의 앞에서 작품이 끝나고 있지만 소녀의 유언을 통해서 소년의 죽음의 인식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학」은 어느 정도 성숙한 청년을 등장시켜 통과제의의 의미를 완전히 파악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성삼이는 덕재와의 만남을 통해 입사의식을 치른 후 민족의 자유와 자아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학을 통해 이념이라는 공포의 세계로부터 완전히 일탈하여 성숙의 과정에 이르고 있다. 결과적으로 성삼이가 덕재를 묶고 있던 포승줄을 풀어준다는 것은 통과제의를 통해 현실사회에서 완전히 성숙한 인물로 거듭 태어남을 의미한다.

셋째 이 세 작품은 통과제의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특수한 객관적 상관물을 도입하여 형상화시키고 있다. 작가는 이들 소설에서 인간의 거쳐야 하는 통과제의의 과정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별, 소나기, 학 등과 같은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 통과제의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별」에서 누이의 죽음을 통해 아이가 어느 정도는 통과제의를 경험하나 생과사의 격렬성으로 나타나는 별을 거부함으로써 아이가 통과제의의 의미를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 소설에서 황순원은 죽음의 경험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별의 상징성을 통해 이중의 세계를 제시함으로써 어린 주인공이 의식의 세계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소나기」에서는 결정적으로 죽음의 통과제의 앞에서 작품이 끝나고 있는 있지만 소녀의 유언적인 암시를 통해서 소년의 죽음의 인식을 상징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학」에서는 결과적으로 통과제의를 통해서 변화된 성삼이가 포승줄을 풀어 버리는 행위를 보여줌으로써 현실사회에서 완전히 진로가 결정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민족의 자유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학을 통해서 주인공의 의식의 변모를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 작품들은 각각 성장기의 인물들이 통과제의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독특한 경험을 보여주고 있다. 「별」에서는 누이의 죽음이라는 충격적인 경험에 직면하나 누이의 별을 거부함으로써 성숙 이전의 삶의 근본문제를 강조하고, 「소나기」에서는 소녀의 죽음을 통한 이성간의 사랑의 아픔을 보여주고, 「학」에서는 덕재와의 만남과 학에 얽힌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 왜곡된 이데올로기의 구속으로부터 순수한 우정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런 점에서 황순원은 미성숙 상태에서 성인 입문에 이르는 통과제의적인 과정을 통해 인간 본성을 집중적으로 탐구한 작가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황순원은 시에서 소설로 변신한 작가로서 상징 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통과제의의 효과를 성공적으로 형상화한 작가라고 할 수 있다.

V. 결 론

이 연구는 황순원 단편소설 「별」·「소나기」·「학」을 분석의 텍스트로 하여 통과제의적 의미와 그 유형적 의미를 고찰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주인공들이 통과제의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그들에게 부과된 정신적인 외상과 정서적인 손상을 어떻게 극복하고 성인으로 성장해 나가는가를 살펴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설 속에서는 인류학에서처럼 구체적인 통과제의 현상은 나타나지 않지만, 작중 인물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상징적 사건으로 변용되어 문학 작품에 수용되고 있다. 따라서 통과제의 소설에서 주인공은 심리적이고 무의식적인 충동과 갈등을 통해서 성숙의 아픔을 경험한 뒤 성숙의 세계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별」에서는 아홉 살난 소년이 어두운 현실 세계에 적응해 나가는 통과제의적 과정이 제시되어 있다. 소년의 통과제의적 체험은 현실로 대변되는 과수노파의 말을 통해서 시작되어 열네 살에는 타자들을 인식하게 된다. 즉, 다른 소녀에게서 어머니 찾기, 아버지와 의붓어머니의 도덕적, 사회적 판단 받아들이기 등을 통해서 현실을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주인공은 누나의 죽음 앞에서 생과 사의 격렬성을 상징하는 별을 거부함으로써 죽음이라는 현실적 경험의 충격성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이 소설은 세속적 세계로 진입하는 과정에 겪게 되는 충격적 경험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소설은 시험적 통과제의 소설 유형으로 분류된다.

「소나기」에서는 성(性)과 사랑에 무지한 소년이 성과 사랑에 입문하는 과정에서 무지로 인한 정신적인 혼란을 겪으면서 점차 성(性)을 인식하게 되고 자신의 인식과 정신적 성장을 자랑스럽게 여김으로써 사회적인 안정감을 얻게 된다. 그리고 사랑에 입문하는 과정에 들어선 후 예기치 않게 나타나는 소나기, 질병, 헤어짐, 죽음이라는 제의를 거치면서 소년의 내면에 씨앗으로 뿌리 내려진 사랑을 인식하게 된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친밀감, 기다림, 그리움, 비밀 간직하기, 갈등 등을 통해서 사랑의 아픔을 경험하면서 성숙하게 된다. 결국, 이 소설은 주인공 소년이 소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극복하는 사랑의 가치를 깨닫고자 몸부림치는 성숙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미완적 통과제의의 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학」에서는 이미 전쟁으로 인해 정신적인 외상과 정서적 상처를 입고 있는 주

인공이 자신의 상처를 하나하나 꺼내면서 점점 자아를 되찾아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자신이 이데올로기의 공포와 형식에 얽매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결국은 학을 통해서 과거에 묶어 두었던 학을 풀어내어 주던 사건의 기억을 통해서 자아에 대한 확신을 비로소 얻게 된다. 이데올로기적인 구속의 상징인 포승줄을 풀어 버림으로써 완전한 깨달음을 통하여 성인입문의 경지에 다다랐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소설은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한 주인공 성삼이가 현실사회의 한 성인으로 거듭 태어남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결정적 통과제의의 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세 소설은 모르데카이 마르쿠스가 제의한 세 가지 통과제의 소설의 유형적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황순원은 청소년기 인물들의 성장과정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심리적 변화 양상을 제의적 관점과 연결시켜서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과는 청소년의 성장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성숙의 문제를 인간 본성의 한 차원과 연결시켜 의미를 포착해 낸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이 세 작품의 통과제의의 구조는 강렬한 상징성을 통해서 형상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다. 결국 통과제의적 깨달음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상징을 통해서 내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별」에서는 생과 사의 거리감을 나타내는 '별'의 상징을 통해서, 「소나기」에서는 소녀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여운 가운데서 소년의 깨달음을 밝히고 있고, 「학」에서는 자유와 민족의 정체성을 암시하는 '학'이라는 상징물을 통해서 통과제의를 체험하게 하고 있다.

통과제의적 의미에 대한 이러한 상징적 처리는 작가 황순원이 시인에서 변신한 작가라는 사실 외에도 수준 높은 문학적 감동을 효과적으로 창조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황순원은 세상에 때문지 않는 청소년기의 인물들이 통과제의적 시련의 과정을 거쳐 세속적 세계로 이입해 들어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 본성의 한 측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황순원의 소설에 나타난 통과제의적 특성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 편의 분석에 안주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그의 작품을 총괄하는 보다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연구는 다음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강선주. 「황순원의 성장소설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1990.
- 곽광수·김현. 「바슐라르 연구」. 서울 : 민음사, 1978.
- 김병욱 편저. 「현대소설의 이론」. 서울 : 대방출판사, 1983.
- 김열규 외. 「민담학개론」. 서울 : 일조각, 1982.
- 김영화. “황순원의 단편소설 II”. 「제주대학교 논문집」 제21집. 1985.
- 김종희. 「문학의 순수성과 완결성, 또는 문학적 삶의 큰 모형」. 서울 : 세계사, 1995.
- 김중하. 「현대소설의 이해」. 프린트 판, 1986.
- 김희범. “황순원 소설의 인물 연구”. 경남대 석사학위논문. 1991.
- 멀치아 엘리아데. 「성과 속 : 종교의 본질」. 이병기 역, 서울 : 학민사, 1983.
- 박혜경. 「현세적 가치의 긍정과 미학적 결벽성의 세계」. 서울 : 세계사, 1995.
- 서준섭. 「이야기와 소설」. 서울 : 세계사, 1995.
- 안성수. “한국 근대 단편소설의 플롯연구 시론”.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1989.
- 왕빈. 「신화학 입문」. 서울 : 금란출판사, 1980.
- 우찬제. 「말무늬, 숨결, 글틀」. 서울 : 세계사, 1995.
- 유종호 외. 「한국인과 문학사상」. 서울 : 일조각, 1973.
- 윤장영. “황순원단편소설 구조 연구”. 한국외국어대 석사학위논문. 1987.
- 이광풍. “현대소설의 제식구조 연구”. 「국어국문학」 제 89호. 1983.
- 이병기. “소설감상의 실제”. 「유한공전문논집 4」. 1989.
- _____. “황순원의 작품세계”. 「유한공전문논집4」. 1989.
- 이보영. “황순원의 세계”. 『황순원 전집 12』. 서울 : 문학과 지성사, 1985.
- 이부순. 「황순원 단편소설 연구」.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1987.
- 이부영. 「분석 심리학」. 서울 : 일조각, 1979.
- 이수용. “황순원 단편소설인물성격연구”.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1995.
- 이재선. “황순원과 통과제의의 소설”. 「한국현대소설사」. 서울 : 흥성사, 1979.
- _____. “황순원 작품의 initiation story적 성격”. 「조윤제 박사 회갑기념 논총」
출판위원회, 1977.
- 이정숙. “지속적 자아와 변모하는 삶”. 「한국근대작가연구」. 서울 : 삼지원, 1985.

- 이태동. “실존적 현실과 미학적 현현”. 「현대문학」 제26권 제 11호. 1980.
- 임유정. 「황순원 소설에 나타난 소년상 연구」. 인천대 석사학위논문. 1990.
- 전미리. 「황순원 단편소설 연구」. 서울여대 석사학위논문. 1986.
- 조남현. “순박한 삶의 파괴와 회복”. 「황순원 전집 3」. 서울 : 문학과 지성사, 1981.
- _____. “황순원의 초기 단편 연구”. 「한국현대소설사 연구」. 서울 : 민음사, 1984.
- 조연현. 「한국 신문학교」. 서울 : 문화당, 1966.
- 최상규 옮김, 찰스. E. 메이 저. 「단편소설의 이론」. 서울 : 정음사, 1981.
- 천이두. “황순원의 소나기”. 조동일 편저. 「한국현대소설작품론」. 서울 : 문장사, 1981.
- Van Gennep Arnold. *The rites of passage*.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0.
- Wellek Rene & Warren Austin. *Theory of Literature*. 김병철 역. 서울 : 을유문화사, 1985.



<Abstract>

A Study on Initiation in Sun-won Hwang's Short Stories
- Mainly from 'Byol', 'Sonagi', 'Hak' -

Kim Bong-Suk

Korean Languag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An Seong-Su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trend of the initiation in Sunwon Hwang's short stories, especially 'Byol', 'Sonagi', 'Hak'.

The initiation, originally a concept from anthropology, has some steps. Of those initiation is thought to be the most important. Such initiations appear in mythology to modern novels. They are usually categorized into tentative, uncompleted, and decisive initiations in proportion to their tension and their influences.

'Byol' shows how a 9 year-old boy adjusts himself to the realistic world. His neighbor old lady causes. When he is fourteen years old, he can understand 'Otherness'. He seeks for the mother in a girl and takes it for granted that his father and step-mother rebuke his sister's love affair. That may result from his hatred of his sister because of her ugliness. Facing his sister's death, he understands the nature of death, but he defies the 'star', a symbol of death and only cries. Consequently he does not go through the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8.

initiation completely. Accordingly this novel can be classified as one of tentative initiation.

In the story 'Sonagi', A boy who was ignorant about love comes to know it through meeting a girl, being caught in a shower, her illness and her death. Going through this process, he transfers from immaturity to maturity. Eventually, the boy can realize the warmth and power of love in spite of her death. This novel ends in the process of the boy's struggle for initiation. This can be classified as one of uncompleted initiation.

In 'Hak', Seongsam comes through psychological and emotional problems caused by war. When he sees his friend, Dukjae and talks, he finds himself preoccupied with horror from Ideology. He unties the rope over the captivated Hak, which symbolizes he is free from Ideology. He comes through a complete initiation. Accordingly, this can be classified as a novel of decisive initiation.

In his novel, Sunwon Hwang's works holds some types of initiation in solution. He views life in the light of 'Rites of Passage' with understanding and affectionate attitude. It is concluded that he is adapt at symbolizing the undergoing of initiation.